

주제별 네트워크

청춘 - 서핑 Surfing

2024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



“우리의 작은 물결기가 점차 강이 되고,
마침내 더 큰 바다로 이어질 그날을 꿈꾸며”



주제별 네트워크

청춘 - 서핑 Surfing

2024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

CONTENTS

Part 1 서핑의 시작

발간사	06
향해의 흔적	07

Part 2 청춘의 서퍼들

'청플(청년플로우)' 소개	12
활동소감	17

Part 3 서핑의 순간

정례회의와 협력사업	30
청년활동가 워크숍	35
수요조사	54

Part 4 파도위기

파도 위의 나침반	86
서핑의 흔적	90



주제별 네트워크

청춘 - 서핑 Surfing

2024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



Part 1 서핑의 시작

발간사
향해의 흔적

발간사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유명화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올 한 해 청플 위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세상의 변화에 긍정적인 물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연대 덕분에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청플은 단순한 청년 모임이 아닌, 청년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온 청년 공익활동의 흐름과 성장을 기록한 중요한 발자취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청플 활동은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경기도 공익활동의 미래에 대해 기대가 큼니다.

끝으로, 청플의 모든 위원님들과 이 여정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만들어갈 더 큰 변화와 성장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유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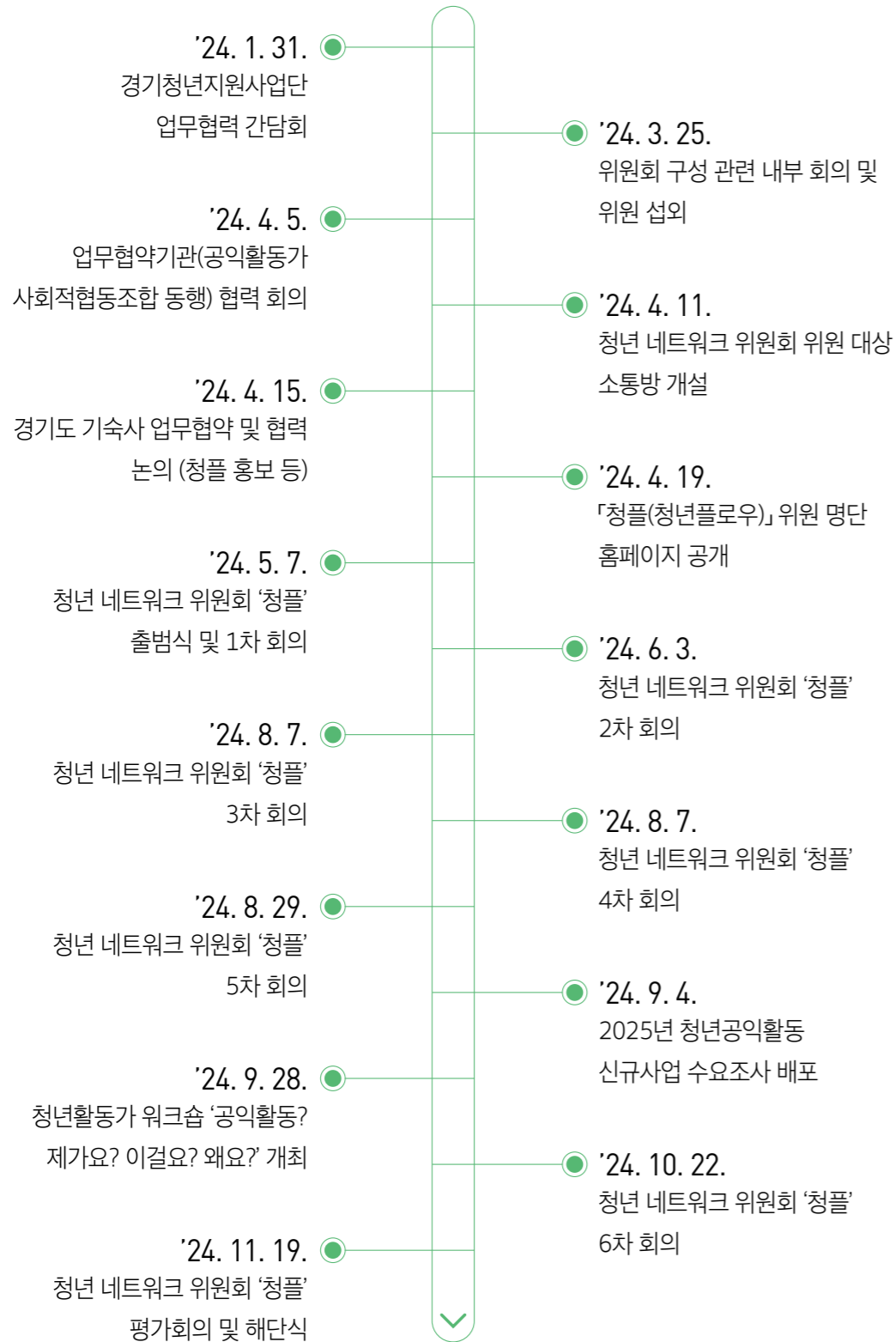
항해의 흔적

2024년 활동개요



- ✓ 공익활동가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운영 **1식**
- ✓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한 지역·주제별 정보 교류, 토론 및 그룹 협업 **7회**
- ✓ 오프라인 행사(청년활동가 워크숍) 기획 및 진행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1회**
- ✓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수요조사 및 의견 제시 **1식(111명 참여)**

추진경과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구성 및 운영

- **위촉기간** '24. 5. 7.(화) ~ '24. 11. 29.(금)
- **구성범위**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청년 활동가 10명
- **구성방법** 활동 분야별 청년 네트워크 위원 센터 직접 구성(섭외)
- **역 할**
 - 지역·주제별 정보 교류, 토론 및 협업,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 '청년 활동가 워크숍' 기획 및 개최
 - 청년 위원별 네트워크 순회
 - 향후 위원회 추진사업 및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수요조사
- **구 성** 총 10명(위촉직 8명, 센터 청년 활동가 2명으로 구성)
- **회의일정** 총 7회(온·오프라인 병행)
- **주요활동**
 - 지역·주제별 정보 교류, 토론 및 협업, 워크숍 기획
 -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 청년위원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



주제별 네트워크

청춘 - 서핑 Surfing

2024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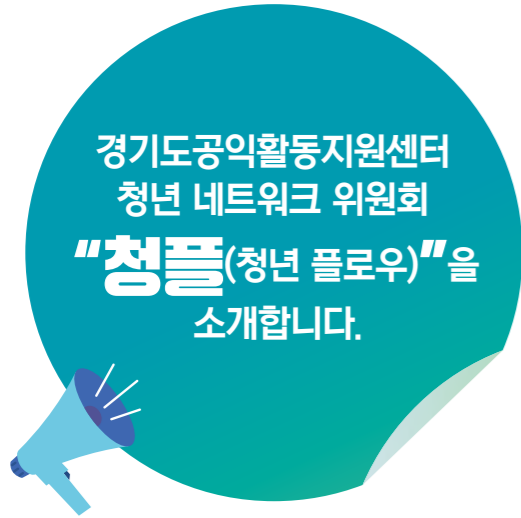
청춘의 서퍼들

'청플(청년 플로우)' 소개

활동소감

'청플(청년 플로우)' 소개

물 흐르듯 살던 우리가
바꾸어갈 사회의 물줄기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주제를 '청년'으로 선정하고, 이에 맞춰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를 출범하였습니다. 청플은 '흐르듯 사는 삶'을 꿈꾸는 요즘 청년들의 대표적인 가치관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의 물줄기를 바꾸어 갈 출발점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 구 성 총 10명(위촉직 8명, 센터 청년 활동가 2명으로 구성)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위촉	강성혁	한국다문화뉴스, 주식회사 몽드 대표	위원장
2	위촉	이슬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활동가	부위원장
3	위촉	김지현	그물코학교 교사, 그물코평화연구소 청년운영위원	
4	위촉	문정아	경기청년지원사업단 경영지원팀장	
5	위촉	박정호	재단법인 숲과나눔 특정주제 연구자	
6	위촉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7	위촉	조한나	청년망고협동조합 대표이사	
8	위촉	조해성	광명시 시정협치협의회 위원	
9	당연	김지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 과장	
10	당연	이선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주임	
-	간사	강민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대리	



청플이 하는 일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로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 정보 교류

지역 및 주제별로 유용한 공익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청년활동가가 필요한 자원을 연결합니다.

청년 간의 토론과 협업

청년활동가들이 모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토론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워크숍 기획 및 참여

청년 활동가가 모두 모일 수 있는 청년 활동가의 장을 열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참여합니다.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청년위원 개인별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서로의 공간을 라운딩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방안을 모색합니다.



청플의 목표

청플은 '물 흐르듯 살고 싶다'는 청년들의 생각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물결들이 모여 더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물줄기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청플의 최종 목표입니다.



청플 주요성과

✓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속성 강화

▶ 청년 공익활동의 파급력 증대

위원들의 정기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위원회 활동 기반을 넓히고 참여 청년의 네트워킹을 공고히 하여 지속가능성 강화

- ▶ 정기회의 **7회**, 오프라인 행사(청년활동가 워크숍) **1회**, 수요조사 **1식** 진행
- ▶ 위원회 평균 출석률 약 **80%**(총 7회 회의 기준)
- ▶ '청플' 위원 활동 만족도 : **4.89 / 5** ★

▶ 활동 기획 및 진행

'청년 활동가 워크숍'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실질적 조언을 나누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전체 참여인원 : **41명**(목표인원 30명 대비 **136.7%** 초과달성)
- ▶ 워크숍 전반적 만족도 : **4.97 / 5**, 네트워크 강화 기여도 : **4.87 / 5**

▶ 활동의 신뢰성 증대

성과보고서 발간을 통해 청플의 운영 과정과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외부 이해관계자 및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서의 신뢰 구축,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운영내용을 기록 및 보존

✓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와 협력 확대

▶ 위원별 네트워크 순회

위원별 네트워크 순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와의 협력방안 모색 및 현장 경험 공유

- ▶ 총 **3회** 방문 및 소개, 공간라운딩 진행(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이슬기 부위원장, 그물코학교 : 김지현 위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위원장)

위원회 단위 센터사업 참여 및 협업 확대

위원별 소속된 다양한 단체와의 연대 강화 및 센터사업에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반 마련

- 경기마을주간 '공릴라(공익활동 릴레이 라디오) 패널 참여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뉴스레터 편집위원
-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
- 그 외 청년 관련 사업 추진 및 협력 요청에 '청플' 위원 추천

✓ 청년 활동가 니즈 파악, 자부심 고취 및 실질적 도움 제공

청년 활동가의 선호도 및 니즈 파악

공익활동 신규사업 수요조사로 총 **111명**의 청년 공익활동가 의견 수렴

- '자유예산형'과 '집단교육형'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이는 향후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특색있는 운영 및 자부심 고취

청년들이 활동 중 느낀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활동가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청플' 정기회의자료는 구글 시트 사용, 종이 없는 회의로 협의
- 청년 활동가 워크숍 내 '뜻밖의 상담소'와 '자부심 부스'를 운영해 청년 정신건강 위로 및 자부심 고취



강성혁 위원장

청년이 공익활동의 스노우볼이 되어
힘차게 굴러가길 바랍니다!

기다려지는 회의가 청플이었습니다. 서로 바쁜 시간을 내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참 보람찼습니다. 특히 청년활동가 워크숍을 구성할 때 아이디어가 현장에 반영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관계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지원해주시는 것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또 함께하는 위원님들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미있게 진행되는 회의에 친구들과 만나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재미있어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청플 활동은 재미있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동 이후 다음 활동을 기다리다 보니 벌써 청플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위원회 활동을 처음 해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청플 위원님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청플 활동을 진행할 때는 1기와 2기 청플 위원간 교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가 확대되면서 넓어지는 인프라를 활용하면 청플 활동을 더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기수 위원들도 꾸준히 관심갖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청플이 공익활동의 스노우볼이 되어 힘차게 굴러가길 바랍니다!





이슬기 부위원장

청년 활동가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 주기를 바라며!

청년플로우 활동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각지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1기에서는 청년 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과 활동 현장에 대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7개월이라는 기간이 다소 짧았지만, 그 경험이 내년 사업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년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역할을 나누어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게 한 이번 경험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시작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터전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청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플로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었기에 그 마음들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밀하게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2025년 방향 및 계획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청년 당사자로서 어떤 지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내년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이 한층 다채롭고 의미 있게 설계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플로우 2기는 이러한 과정을 함께하며 청년 활동가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청년플로우 위원님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점은, 이 소중한 인연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수별로 지속적인 모임을 만들고 모든 기수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도 마련된다면 청년 활동가들이 서로 교류하며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미와 유익함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청년플로우 1기 활동! 앞으로도 쭉~ 청년 활동가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 주기를 바라며! 2024년 모두들 고생했어요~!



김지현 위원

거의 소진되어가긴 하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말랑말랑한 도전

처음 청플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 모였을 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르니다. 저는 또래 청년 활동가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일을 해왔었고,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아 활동가 직업이 생업인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 공익활동가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뵈는 것이 얼마나 새로웠는지요.

회의가 1회, 2회 진행되면서 서로의 활동 장소도 방문해보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가치와 즐거움을 품고 살아가는지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참 의미있었습니다. 서로가 '공익활동'을 한다는, 서로의 상황과 현실을 짐작할 수 있기에 안쓰럽지만, 그럼에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되는 그런 공통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되기도, 재미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금방 친밀감이 쌓이고 유쾌한 대화를 해갈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가'는, 특히 '청년 공익활동가'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대와 인정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이번 청플을 통해 서로 알아가면서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분들을 알고, 연결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거의 소진되어가긴 하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말랑말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열정을 서로 북돋아주며 우리의 '정신건강'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된 워크숍을 열 수 있던 것도 의미있었습니다. 청플 활동이 짧게 느껴져서 아쉽네요.

다음에, 각자의 자리에서 전보다는 덜 애쓰고 더 보람을 느끼며 지내다가 또 뵈기를 희망합니다!





문정아 위원

쁜 과정이
즐겁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청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 있었습니다. 청년 활동가 워크숍, 2025년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조사 준비하면서 과제 같은 압박감도 있었지만, 공익활동에서 다양하게 일하는 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즐겁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한 탓인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현재 청년사업을 하는 저에게는 아직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표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공익활동을 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갖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청플 활동에서는 공익이란 무엇이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공익'이란 주제로 공익이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이 있는지, 평소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공익'은 무엇인지 등, 청년이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숏츠 등을 SNS를 통해 홍보한다면, 도민 공익활동 확산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위원회에 애정을 가득 담아 조직적(?)으로 잘 이끌어주신 강민진 대리님 감사합니다.



박정호 위원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년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중 청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년이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청년이라 그런가 봅니다.

돌이켜보면, 청플 활동에 참여했던 시간은 청년의 공익활동에 대한 정체성과 미래를 꿈그려나가는 소중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플의 가장 큰 매력은 모든 활동이 정해진 것 없이, 모든 과정이 청년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떠오른 아이디어의 씨앗들이 열띤 토론과 세부적인 회의를 거치며 구체화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플이 더 많은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청플 활동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지속적인 공익활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플이 계속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행동으로 옮기는 소중한 소통의 통로로, 이 여정에 더 많은 청년들이 동참해 나가길 바랍니다.





조한나 위원

청플 회의론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활기를 찾아 지역에 돌아와 활동에 몰입했습니다.

2024년 공익활동가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에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따뜻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위원님들에게 느껴지는 밝은 에너지가 2024년도의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위원님들의 따뜻하면서도 강한 힘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회의가 있는 날이면 위원님들에게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다시 활기를 되찾아 지역에 돌아와 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뜻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제게는 참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느낀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참 좋았습니다. 언제나 허물없이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저도 부담 없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덕분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의미 깊게 느껴졌어요.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위원회 활동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급어를 받는 위치이다 보니, 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보다는 영상을 통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어요. 위원님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직장 계약이 종료되어 좀 더 자유로운 상태가 되니,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과 더 깊이 교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싶습니다. 2025년 공익활동가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연임을 부탁드립니다.

유쾌한 것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무해함을 느낄 수 있었던 너무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내적 친밀감으로 함께한 우리 위원님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모두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조해성 위원

어쩌면 저도 몰랐던 청년들의 현 주소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조해성 위원입니다. 각 지역에 '청년'이라는 접점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는 청년들을 만난것이 이 청플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각 의제들에 맞춰 청년으로써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길다면 길고
다른이에게는 짧게 느껴졌던 7개월의 시간.
그 시간동안 같이 기획한 토크콘서트를 잘 마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년'만을 생각하고 '청년'만을 위한 기획을 하면서 어쩌면 저도 몰랐던 청년들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대담론으로 무장한 사회문제들이 청년들만의 의무가 아닌 청년들과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고민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가진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나가며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그런 장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들 화이팅!
청년이라서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김지훈 위원

더 나은 내일의 변화를 위한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이번에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에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함께한 다른 청년 위원들과의 협력과 소통은 저에게 큰 자극이자 배움의 기회였고,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나누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던 시간은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청년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속의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더 나은 내일의 변화를 위한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지금으로부터'라는 것이었습니다. 24년 활동은 마무리가 됐지만 '청플'의 활동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공익활동 관련 문제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플'에 함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온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경험을 기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청플' 파이팅!!!



이선주 위원

청플은 우리 사회에 공익활동이
더욱 깊숙히 자리잡는 과정의 첫 시작

각기 다른 지역,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활동의 결과, 성과와 별개로 청년 활동가가 만나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더 나아가 청년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일원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생각하며 한단계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센터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과 6번의 회의와 워크숍이라는 결과물을 넘어서서 7개월간의 청플 활동이 우리 사회에 공익활동이 더욱 깊숙하게 자리 잡는 과정의 첫 시작이라는 의미를 잊지않고 청년 활동가들이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함께 실천하는 청년 플로우가 될 수 있기를 응원을 보냅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청년플로우가 1기, 2기를 넘어서서 지금의 청년 활동가가 선배 활동가로 성장하고 후배 활동가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그 날까지 오래 이어지는, 각 기수별 활동가들이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총괄 강민진 대리

Go with the flow,
and be the flow.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어”
“평범하게 사는 것도 지금은 쉽지않아... 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래”

친구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런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물음표처럼 제 마음을 찌르고 흔들었습니다. 망연히 흘러가는 날들 속에서, 우리가 ‘청춘’이라는 이름 아래 인생 선배들이 부러워하던 이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정말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깊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단순히 주어진 사업이나 업무를 넘어 청년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잡한 사회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도 나의 목소리를 던져 세상에 부딪히는 ‘청년 활동가’와 함께 모이는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7개월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 함께 발 맞추며,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응원이 단단한 그물처럼 엮여 이끌어 준 시간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청플의 이 짧고도 강렬한 흐름이 경기도라는 바다에 모여, 청년의 저력을 세상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성장과 흐름을 응원하고 바라보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선배와 후배 활동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청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의 작은 물줄기가 점차 강이 되고, 마침내는 더 큰 바다로 이어질 그날을 꿈꾸며.

Go with the flow, and be the flow.

서로가 함께 만든 이 물결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제별 네트워크

청춘 - 서핑 Surfing

2024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



Part 3

서핑의 순간

정례회의와 협력사업

청년 활동가 워크숍

수요조사

정례회의와 협력사업

청플은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청년 활동가들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주요 공익활동 이슈에 대해 토론하며 협업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례회의에서는 특히 **'청년활동가 워크숍'**을 기획하며,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센터가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나누었습니다.

출범식 및 1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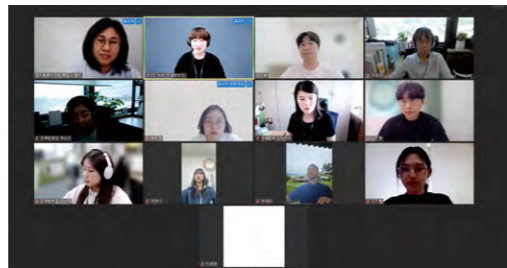
5.7.(화) 13:30
경기도청 구청사



-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출범식
- 임원 선출
위원장 : 한국다문화뉴스 대표 강성혁, 부위원장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활동가 이슬기
- 공익활동 청년 워크숍 일정과 기획(안) 논의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위원별 현장 순회 간담회 추진 안내
- 경기마을주간 '공릴라' 청플 위원 참여 제안

2차 회의

6.3.(월) 14:00
온라인



- 정보 교류 : 이슬기 부위원장, 김지현 위원, 이선주 위원
- 청년 활동가 워크숍 일정 확정 : 9월 28일 개최
- 워크숍 주제 :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및 정신건강
- 진행 방법 : 토크콘서트와 참여형 프로그램 형태
- 위원별 '25년 신규사업 제안' 각 1건(청년 네트워크 연결 강화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 경기마을주간 진행자와 패널 섭외를 논의

3차 회의

7.10.(수) 12:00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경기마을주간 '공릴라' 참여 위원 후기 공유
- 위원별 네트워크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소개 및 공간라운딩 : 이슬기 부위원장 / 정보 교류 : 김지현 위원
-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을 위한 장소선정 및 프로그램 논의
- 당일 워크숍 진행과 위원별 역할 분담(퍼실리테이션 등)
- '25년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필요성을 합의

4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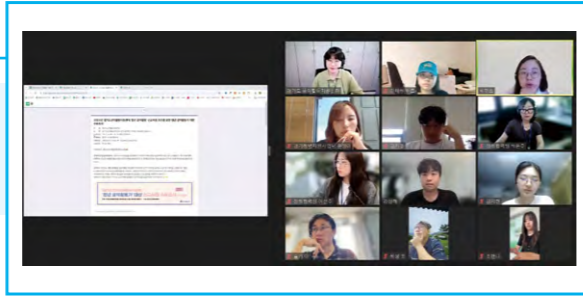
8.7.(수) 14:00
화성 그물코학교



- 정보 교류 : 문정아 위원, 김지현 위원
- 위원별 네트워크 '그물코학교' 소개 및 공간라운딩 : 김지현 위원
- 청년 활동가 워크숍 기획 : 키워드 스토리 프로그램 진행
- 패널 및 사회자 섭외, 부스 운영 등 역할 분담
- '25년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을 위한 간결한 수요조사 초안을 작성, 참여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 각 위원이 수요조사에 참여해 피드백 반영 후 의미 있는 표본 선정에 주의하여 배포 예정

5차 회의

8.29.(목) 10:00
온라인



- 정보 교류 : 이선주 위원
- 청년 활동가 워크숍의 최종 준비사항을 점검
- 모듈 구성 및 키워드 스토리 실습지 내용 조정
- 수요조사 문항 정리, 수요 파악을 위한 일정과 방법 확정

6차 회의

10.22.(화) 14:00
한국다문화뉴스



- 위원별 네트워크 '한국다문화뉴스' 소개 및 공간라운딩 : 강성혁 위원장 / 정보 교류 : 김지현 위원
- 청년 활동가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 공간, 프로그램, 운영, 토크콘서트 등 여러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과 개선 의견 논의
- 신규사업 수요조사에서는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교육·일자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도출
- 조사 결과 공유의 중요성 강조, 비영리와 민간 협력을 통한 홍보 확대와 인건비 문제 해결 필요성 등이 제기

평가회의 및 해단식

11.19.(화) 14:00
한국다문화뉴스



-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해단식
-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활동 성과 공유 및 평가회의
- 청년 활동가 워크숍 및 신규사업 수요조사 추진결과 공유
- 감사장 및 공로위원 표창 수여, 활동 영상 상영 및 기념사진 촬영, 네트워킹 및 소회 나누기

주요성과

✓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킹

청플 위원회는 '함께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한 회의 진행으로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동 기반을 확장하고, 참여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청년 공익활동의 파급력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정기회의 7회 진행



평균 출석률 8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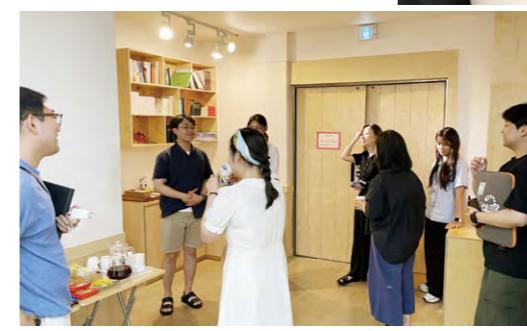
✓ 함께하는 공간, 확장되는 네트워크

청플 위원들은 돌아가며 **각자의 활동 공간에서 정례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서로의 공간을 방문해 라운딩하며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네트워크를 소개하면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3회 네트워크 순회

주요 방문 네트워크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슬기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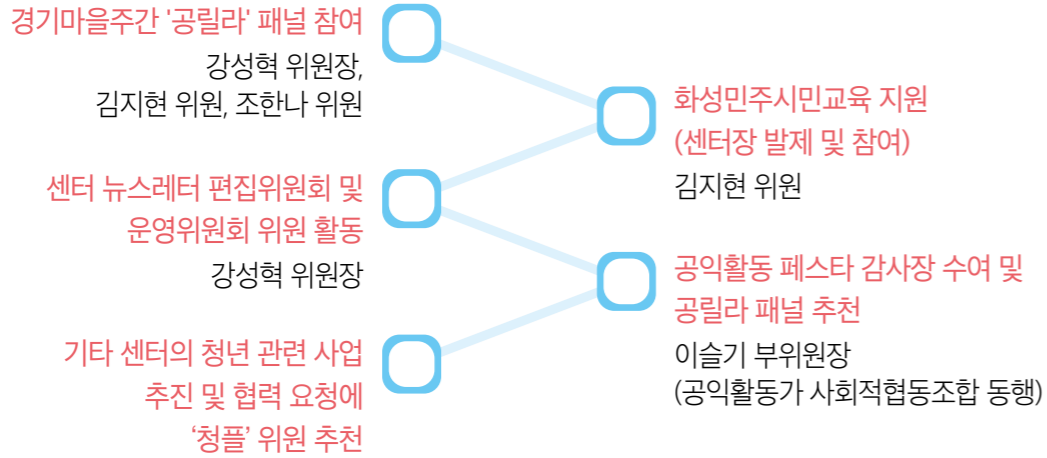
↑ 그물코학교 (김지현 위원)



↑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위원장)

✓ 센터와의 협력으로 더 넓은 공익의 장을 열다

청플 위원들은 각자의 소속 단체와 센터사업의 연대를 통해 청년 공익활동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플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지역과 주제를 넘나드는 활발한 교류의 장을 형성하며 청년 공익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활동가 워크숍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

다양한 배경의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공익활동의 미래 비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제공하는 청년 활동가 워크숍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성과



- 행사명: 청년 활동가 워크숍 "공익활동? 제가요? 이걸요? 왜요?"
- 운영일시: '24. 9. 28.(토) 14:00 ~ 17:00
- 장소: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광명시 광명역로 51 광명종합터미널 1층)
- 주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주관: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강성혁, 이슬기, 김지현, 문정아, 박정효, 조한나, 조해성, 김지훈, 이선주 위원
- 참석자: 총 41명(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8명 포함)

주요 프로그램

✓ [토크콘서트] “터닝포인트 : 공익활동의 갈림길에서”

- 진행 : 하승창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패널 : 김은주 (전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김지훈(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 과장), 강성혁 (한국다문화뉴스 대표)

토크콘서트는 공익활동을 떠난 사람(김은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강성혁), 떠나려다 남은 사람(김지훈)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조언과 응원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끝없이 고민하는 청년 활동가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결정 과정 공유를 통해 공익활동의 고민과 미래 비전을 탐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네트워크] “활동가 인사이드 : 키워드 스토리”



인간관계
 지속가능할까
 청년 안전망
 활동의 수일
 수용성
 다양한 걸
 업그레이드
 문화예술로도

5 이선주 위원
 인간관계가 좋아야 일의 능률이
 잘 오르는 편입니다만?!

6 박정호 위원
 스트레스도 풀고 역량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없을까?

역량
 업그레이드
 스트레스
 활동가는
 수용성
 다양한 걸
 업그레이드
 문화예술로도

수용성
 도전
 관심
 청년
 활동가
 사회적
 문화예술로도

7 김지현 위원
 사회가 관심 갖지 않는 분야?
 럭키바키잡앙
 : 활동가의 도전과 좌절

네트워크 시간에는 각자 사전 선택한 공통 고민 속에서 함께 모여 5명씩 총 7개 모둠으로 구성되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든 점, 어려운 점, 한계점을 담은 문단과 희망적, 성취감을 담은 문단으로 각자의 문단을 완성한 후 그룹 내에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였습니다. 키워드 스토리 문단 제작 및 퍼실리테이션까지 청플 위원들이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한 청년 활동가들은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취를 키워드로 나누어 공유하며 연대감을 형성하고 공익활동의 비전과 의미 재발견을 통해 청년 활동가들의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부스 운영] “청년 활동가 임팩트 스퀘어(Impact Square)”

이번 워크숍에는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네트워킹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Impact Square’는 함께 모여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내는 중심지라는 의미를 가지며, 청플 위원들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아 워크숍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지나 다니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오픈형 부스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 ‘뜻밖의 상담소’ 소속 상담사 김지연, 박도담
-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어 3명의 활동가에게 대면상담 기회 제공
- 청년 활동가가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 마련
- 번아웃 테스트지 비치, 테스트 참여 후 전문 상담사의 미니 상담진행
- 각자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아로마 마사지 진행




활동가 마음건강 챙기기
Mind Oasis
 : 뜻밖의 마음 쉼터


청년의 자부심
Pride Zone
 : 나의 원동력


청년 네트워크 홍보
Network Hub
 : 청플 커넥션 존

- 청플 위원별 네트워크 홍보자료 비치, 다양한 활동 기회 소개
- 향후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 2025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 공익활동가 지원 수요조사 참여 이벤트 진행
- 참여자가 수요조사 설문에 응답하여 청년 공익활동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주요성과

✓ 경기 전역의 청년 활동가들의 만남의 장 제공

🕒 청년 활동가 워크숍 개요



✓ 워크숍 주요 성과

① 청년 활동가들 간의 연대와 교류 기회 창출

• 워크숍을 통해 경기 전역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교류 및 협력

• 참여자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의 공익활동 도움 정도 **4.97 / 5** ★★★★★

장소 만족도 **4.84 / 5** ★★★★★

• 향후 필요성 및 추천 의향

5.00 / 5 ★★★★★

② 청년 공익활동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실질적 도움 제공

• 토크콘서트 만족도

4.87 / 5 ★★★★★

• 자부심 부스 참여자 : **21명**

키워드 : 존중, 인정, 동료, 협력과 연대

• 뜻밖의 마음 심터 만족도

4.81 / 5 ★★★★★

1:1 상담 **3건**

번아웃 테스트 및 미니상담 **26건**

③ 청년 공익활동 네트워크 강화 및 실질적 조언 제공

• 네트워크 세션(활동가 인사이트 : 키워드 스토리) 만족도

4.90 / 5 ★★★★★

• 워크숍 전반 만족도

4.97 / 5 ★★★★★

• 네트워크 강화 기여도

4.87 / 5 ★★★★★

• 향후 활동 도움 기여도

4.97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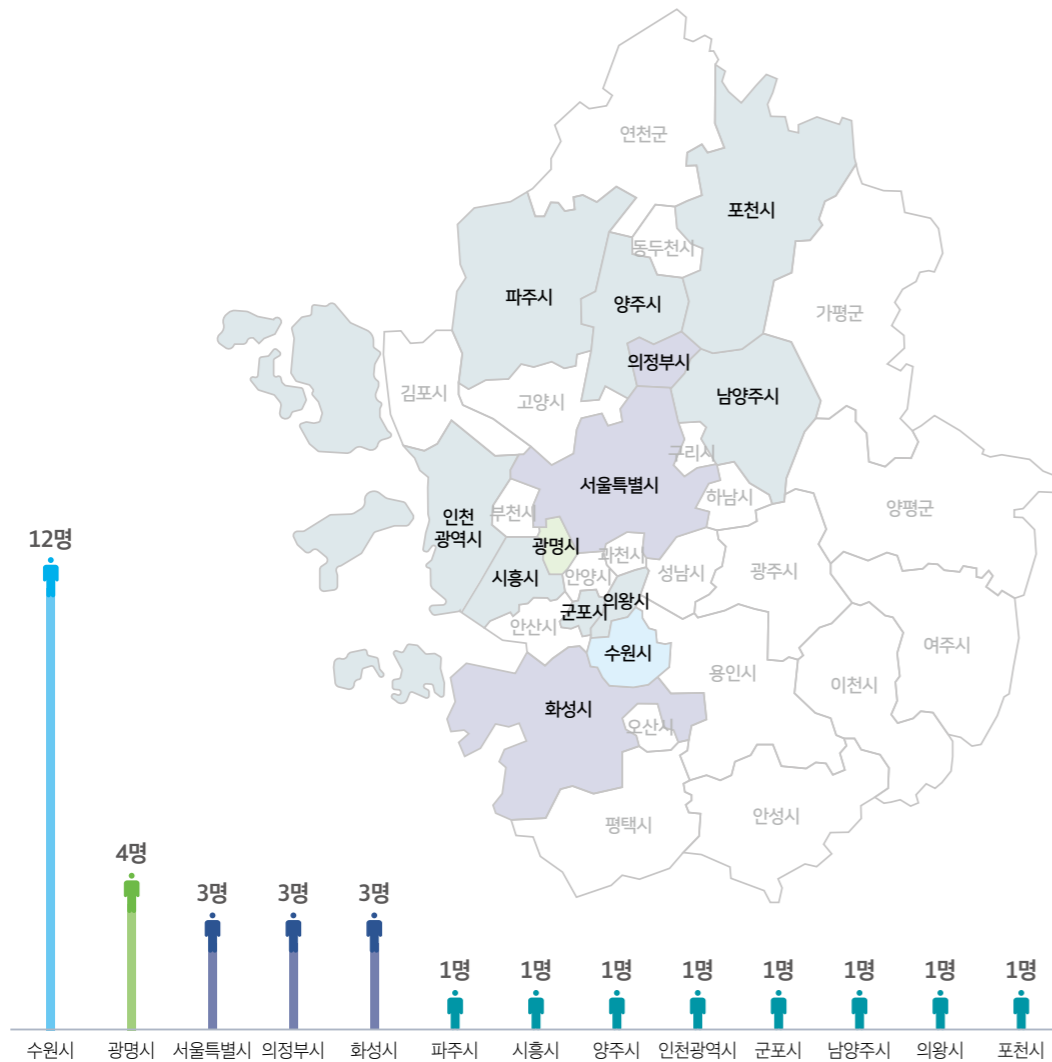
만족도조사 결과

- 설문기간 : '24. 9. 28. 워크숍 종료 후 ~ '24. 9. 30. 09:00
- 응답인원 : 참여자 41명 중 31명 응답(응답률 : 75.6%)

1 거주지역 및 활동지역을 알려주세요

▶ 참여자의 거주 및 활동지역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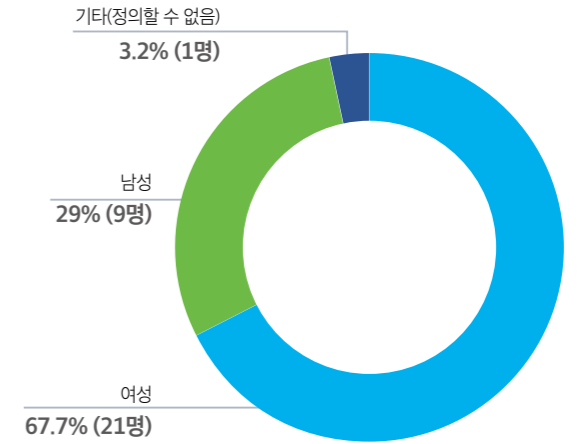
- 17개 지역(*서명부 기준) 청년 활동가 참여로 도내 다양한 지역의 공익활동 수요와 관심이 확인
- 지역 간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공익활동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
- 향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활동가' 지원이 필요



2 성별을 알려주세요

▶ 참여자 성별

- 청년 활동가 워크숍에서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짐
- 향후 프로그램 기획 시 성별 분포를 고려한 접근 필요



3 이번 워크숍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셨습니까?

▶ 워크숍의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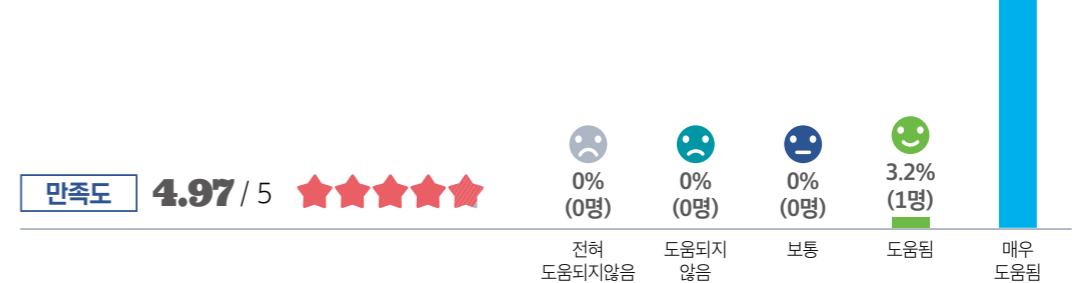
- 행사 내용과 운영 결과는 향후 유사한 행사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활용 가능



4 프로그램의 구성(토크콘서트, 네트워킹, 부스 등)이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프로그램의 구성의 전체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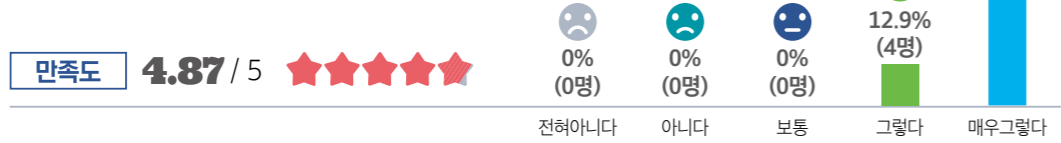
- 프로그램의 각 요소(토크콘서트, 네트워킹, 부스)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



5 이번 워크숍이 청년 공익활동가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워크숍의 네트워크 강화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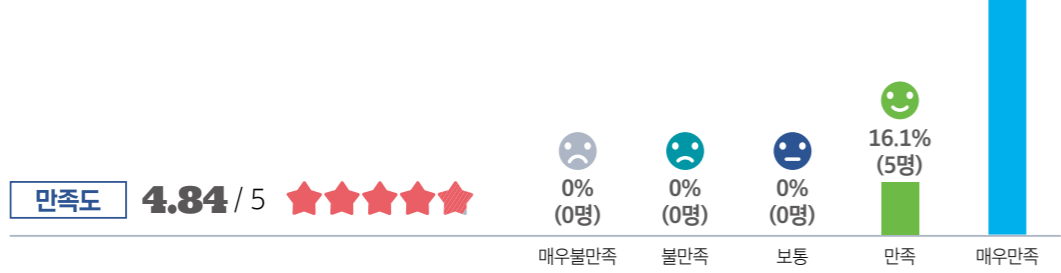
-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및 협력 관계 강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을 시사
- 네트워킹 세션과 활동은 참가자들 간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공동 프로젝트나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검토 필요



6 이번 워크숍이 진행된 장소와 비치된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습니까?

워크숍이 진행된 장소와 시설

- 참가자들이 행사 진행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을 제공받았음을 시사
- 소수의 불만족 의견의 경우 주차 공간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



7 이번 워크숍 내용이 향후 활동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향후 활동에 대한 도움 여부 및 기여도

- 워크숍 내용이 향후 공익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
- 이는 워크숍에서 다룬 주제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음을 의미



8 향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속성, 향후 필요도 및 주변 추천의향

- 100%의 참가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 해당 프로그램이 현재의 공익활동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
- 이는 참가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시사



프로그램별 질문

9 [토크콘서트] "터닝포인트: 공익활동의 갈림길에서"의 유익성은 어떠셨습니까?

[토크콘서트] 세션 만족도

- 토크콘서트 내용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시사
- "보통"과 "만족"을 선택한 소수의 응답자의 경우, 공익활동에 관심이 없어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요구함으로 추정



10 [네트워크] "활동가 인사이드: 키워드 스토리" 세션이 소통과 경험 공유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네트워크] 세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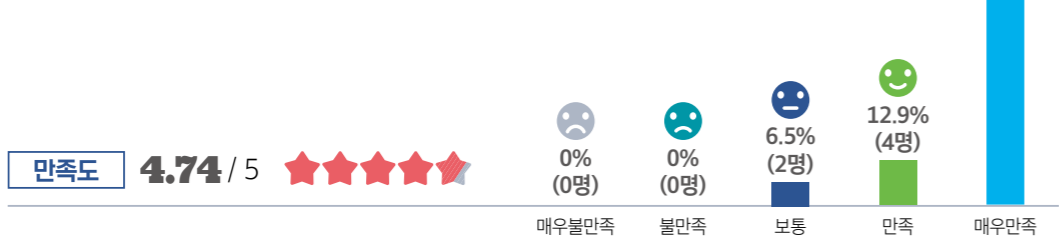
- 참가자들 간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촉진했음을 시사
- 키워드 기반의 경험 공유는 공익활동가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1 [부스] "청년 활동가, Impact Square(커넥션 존, 자부심 부스등)"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습니까?

📌 [부스] 세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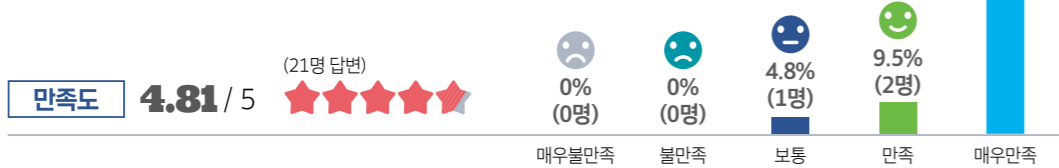
-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네트워킹의 장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을 의미
- 청년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받는 데 기여



12 (선택) "뜻밖의 마음 쉼터" 상담 부스를 이용하셨다면, 그 경험은 어땠습니까?

📌 [뜻밖의 마음쉼터] 세션 만족도

- 상담 부스가 참가자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
- 청년 활동가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고충을 경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 21명이 상담 부스를 이용했다는 것은 참가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
-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을 시사



13 이번 워크숍에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 전반

담엔 일반! 소통의 시간 넉넉해서 짱아여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재밌었습니다.

적당한 시간 배분과 적절한 소통 시간과 재밌는 진행까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인생 최고로 즐거운 워크숍이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좋아서 더 힘이 났어요!

기획자의 의도가 잘 파악된 워크숍이었습니다.

📌 토크콘서트 관련 주요의견

토크콘서트에서 고민을 서로 나누는 경험이 좋았는데 어떤 해결책이나 조언을 얻는 부분에서는 아쉬웠다.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활동가로서의 삶을 상상해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토크콘서트가 공익활동, 활동가에 대해 전혀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토크콘서트 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토크콘서트도 하승창 센터장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정리해주시고, 패널 분들도 솔직하게 나누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행자님께서 패널분께 던져주신 질문과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도 답해 보았습니다. 공익활동가로서 저를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트워킹 관련 주요의견

네트워킹 시간에 공동점이 있는 분들과 만나게 되어 즐거웠고 조언도 듣게 되어 좋았다.
그 자리에 어떤 배경의 분들이 오신 건지 궁금했는데 참석자 프로필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여주셨어도 좋을 것 같다.

각 공익단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개 부스가 있거나 소개를 들을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선배 활동가님들께 조언도 들을 수 있었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행이 너무 깔끔해서 감탄했어요.

◎ 운영(공간 및 시간) 관련

장소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그리고 3시간은 너무 짧아요 ㅠ ㅠ

뒤풀이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몰랐는데 미리 알았다면 시간을 빼두었을텐데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다.

짧지만 알차게 잘 구성해주신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만족했습니다.

조원들과 친하게 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광명에서 행사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런 시간이 자주 있기를~

광명시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요.
좋은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청년 활동가 소동의 장이 시작되어 의미있었다.

사랑해요

2024 청년활동가 워크숍 총평



이번 청년 활동가 워크숍에는 경기도 내 17개 지역에서 총 41명의 청년 활동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의 공익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 설문 결과, 응답자의 **99.4%**가 워크숍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4.97/5**)를 보였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구성(토코콘서트, 네트워킹, 부스 등)에 대한 만족도 또한 **99.4%(4.97/5)**로 평가되어, 각 프로그램 요소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내 공익활동 활성화라는 센터의 비전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트워크 강화 기여도에 대해서도 **97.4%(4.87/5)**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참가자의 **99.4%(4.97/5)**가 이번 워크숍의 내용이 향후 공익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전체 참가자들이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목표 인원인 30명을 초과한 41명의 참여를 기록했으며, 향후에도 청년 활동가를 위한 정기적 워크숍과 참여 인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 간 정기적인 네트워킹 모임 추진, 활동가 커뮤니티 개설 요구 등 청년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네트워킹을 위한 기회의 필요성도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해당 만족도 조사 결과와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년활동가가 함께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활동가를 위한 제언

김은주
센터장

2006년부터 20여년이 다 되는 기간을 청년활동가로 살아왔다. 청년이자 활동가로서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나는 연대자로서 누군가의 목소리에 함께 목소리 내주고 사회적 관계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사회적 가치와 사회변화를 위한 투쟁 속에 함께 있었다.

이런 사람을 활동가라 부르고 이런 행위를 공익. 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내가 누구의 위치에서 서 있는지 내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인다. 누구의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를 분석하고 행동하는 일은 사회변화를 위한 무한의 상상이다.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청년 활동가들이 있다.

나는 이런 사회변화와. 사회적 가치를 위한 분투에 노력하는 활동가들이 지쳐 떠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고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는 오늘과 같은 각자도생 하는것이 당연한 세상에 무엇으로 청년 활동가들을 떠나지 않게 붙잡을 수 있을까?

시민사회 활동의 사회적 인정, 시민사회단체의 더 나은 여건, 청년활동가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등을 위해 다 같이 작당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제안하는 역할들을 너나 할것없이 멈추질 않길 바란다.

변화는 당연히 당장 꿈도 못 꾸겠지만 공동감각을 가진 동지가 생기면 같이 내딛는 한걸음이 사회변화를 위한 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년 전 내가 무수히 흔들리면서도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김은주

- (현) 광명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전)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전)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국장

청년 활동가를 위한 제언

하승창
센터장

청년활동가 워크숍에서 공익활동을 떠난 사람,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떠나려다 남은 사람이라는 분류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활동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실존적 고민을 잘 표현한 분류 같았습니다. 실제 그날의 논의에서도 그런 실존적 고민들을 여과 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게는 세대를 넘어서도 '생계'같은 공통적인 실존적 고민은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선배들보다 훨씬 발랄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노무현 재단의 '살롱 창덕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활동가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 보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세대의 비장함과 결연함 대신에 '사랑'과 '배려'와 '함께'라는 정서가 자리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공감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국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활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이라는 것은 같은 지 몰라도 주어진 환경과 놓여진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과 자세,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잘하고 계신거예요. 지금처럼 흔들리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의 모습들이 쌓이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돌 하나 하나 쌓이게 되고 끝내는 '변화'라는 성취를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승창

- (현) 노무현재단 상임이사 / 노무현시민센터 센터장
-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
-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전) 시민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활동가 지원 수요조사

개요

- 조사명 '25년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활동가 지원 수요조사
- 조사기간 '24. 9. 4.(수) ~ 9. 30.(월) (27일간)
- 참여인원 경기도를 거주 또는 활동지역으로 하는 청년 공익활동가 **111명**
- 참여방법 온라인 설문지 작성
- 주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공고 및 홍보 방법

- (온라인) 센터 홈페이지 게시, 블로그, 페이스북 홍보
- (온라인) 중간지원조직 및 유관기관 홍보 요청
- (온라인)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위원별 네트워크 개별 연락으로 참여 촉진
- (오프라인) 청년 활동가 워크숍 현장 참여자 대상 홍보



수요조사 추진결과

문항별 응답결과 분석

1 귀하의 거주지역 및 활동지역이 어디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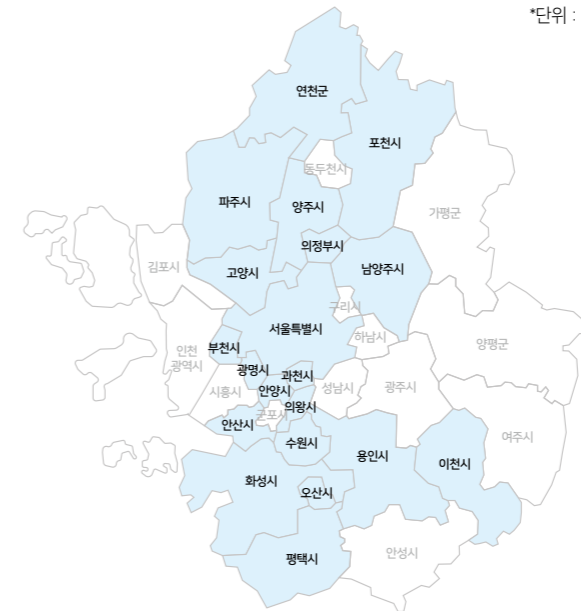
거주지와 활동지역이 다를 경우, 예시와 같이 두개 모두 작성해주세요. 예) 수원시 / 의정부시

응답자의 거주지역 및 활동지역 파악

-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필요성]** 경기도 20개 시·군(고양, 과천, 광명, 광주, 남양주, 부천, 수원, 안산, 안양, 양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 그 외(서울시, 경기도, 전국)에서 응답, 경기도 전역의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익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지역	응답인원	지역	응답인원	지역	응답인원
고양시	4	안양시	2	파주시	2
과천시	1	양주시	7	평택시	5
광명시	8	연천군	6	포천시	4
광주시	1	오산시	1	화성시	6
남양주시	2	용인시	6	서울시	8
부천시	3	의왕시	2	경기도	1
수원시	46	의정부시	6	전국	2
안산시	4	이천시	2	계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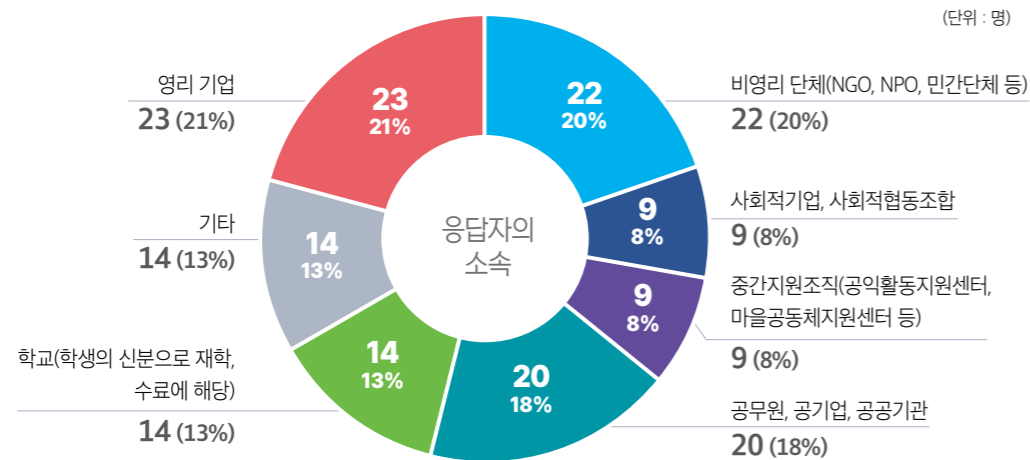
*단위 : 명 / 거주 및 활동지역 중복체크 인원 포함



2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응답자의 소속

- [다양한 부문에서의 활동]** 영리 기업(23명)과 비영리 단체(NGO, NPO 등, 22명)에 각각 소속된 응답자가 많은 것은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 응답자들의 소속이 다양한 만큼, 청년 공익활동가들은 다양한 조직 및 개인적 배경에서 활동 중임을 파악, 이는 공익활동이 특정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영리기업, 비영리 단체, 공공 부문, 교육 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소속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협력 전략이 필요하며, 다양한 배경의 청년 공익활동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



※ 기타 답변 내역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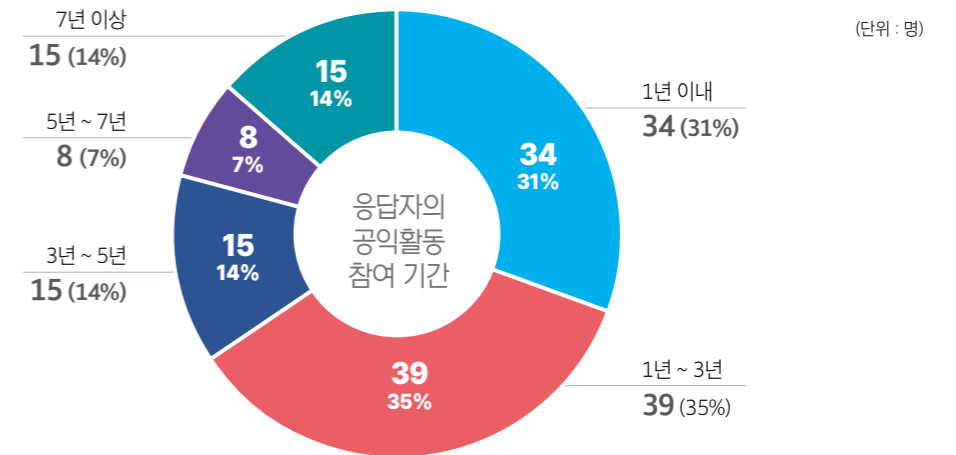
- 개인활동가, 취준생, 대학, 청년활동가, 협동조합, 직장인, 영리기업 사업자도 있고, 비영리단체(시민단체) 활동 및 공공기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경험 있음, 정당, 중소기업, 수원시민, 프리랜서

3 공익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응답자의 공익활동 참여 기간

[공익활동 참여 기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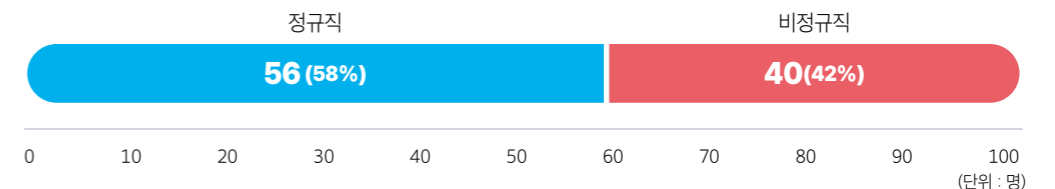
- 주 활동기간 : 1년~3년(39명) / 전체 응답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이는 청년들이 공익활동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이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 필요
- 다양한 참여 기간을 가진 청년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마련하여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활성화 도모 필요



4 귀하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선택)

응답자의 근무 형태

- 응답 인원 전체 96명 중 56명(약 58.3%)이 정규직, 40명(약 41.7%)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이는 응답자의 근무 형태가 정규직, 비정규직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시사
- 응답자의 근무 형태는 청년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정규직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일정한 생활 불안정성과 함께 공익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파악, 따라서,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정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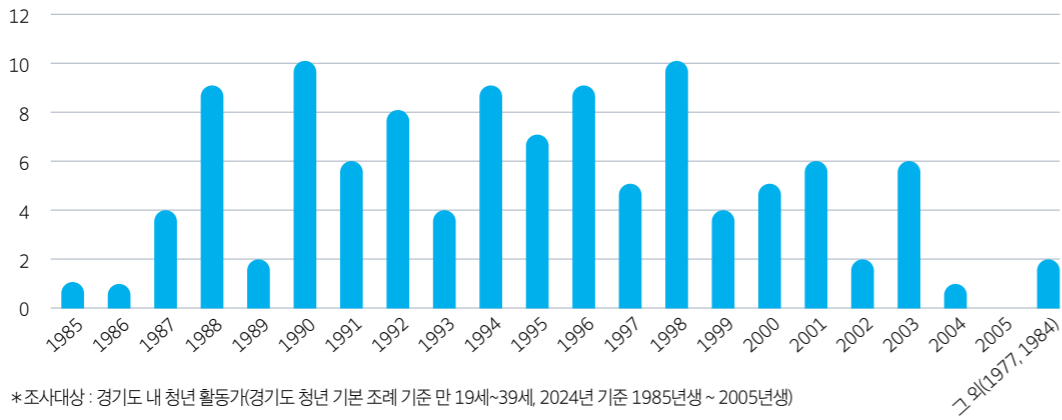


5 귀하의 출생 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단위 : 년)

예) 1996 / 2001, 청년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자의 출생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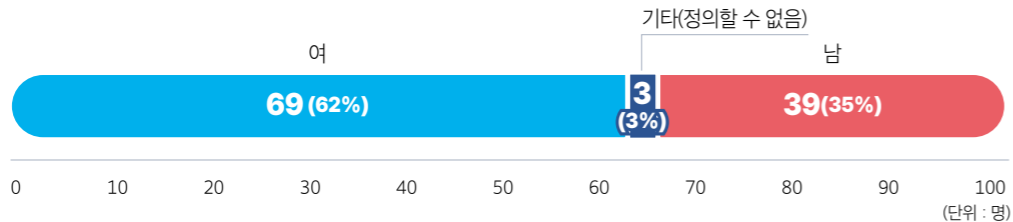
- [응답자의 연령 분포]** 응답자는 주로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령대에 속하며, 2024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활동가로 설정된 조사 대상에 부합
- 청년 공익활동 지원 정책은 현재의 청년 활동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 도출, 예를 들어, 더 젊은 세대(2000년대 출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절실히 필요, 응답자가 출생연도에서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청년 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시사, 특히, 30대 초반의 활동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나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



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응답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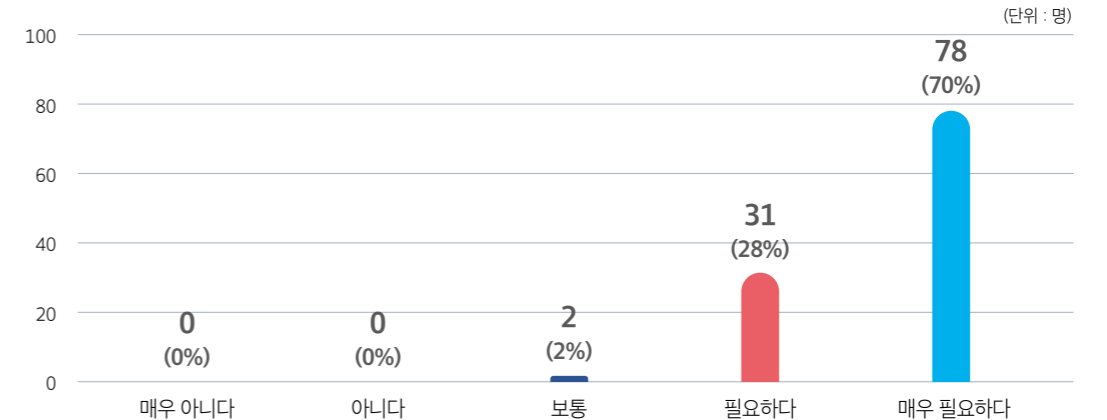
- [성별 분포의 불균형]** 응답자 중 여자의 비율(69명, 64.4%)이 남자(39명, 36.1%)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청년 공익활동가들 사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시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은 공익활동의 성격에 따라 여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이슈(예: 젠더, 사회적 약자, 환경 문제 등)와 관련된 활동에서의 청년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는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 이를 바탕으로 성별 간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및 신규사업 추진 필요



7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대상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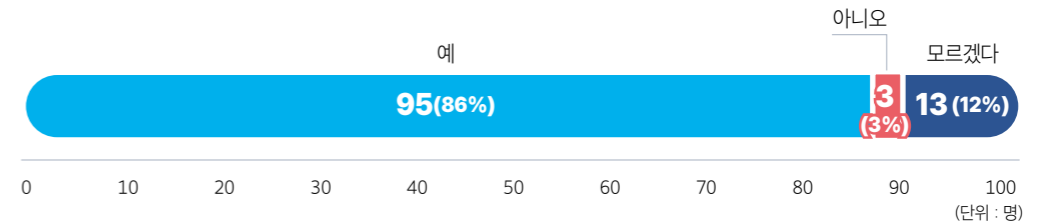
- [높은 필요성 인식]** 응답자 중 '매우 필요하다'(78명, 73.1%)와 '필요하다'(31명, 29.8%)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아 청년들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 평균 점수 4.7점은 지원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해당 사업이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응답자들의 높은 필요성 인식은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시사, 이는 청년들이 공익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



8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청년 대상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의향

- [높은 참여의향]** '예'라는 응답이 95명(약 89.6%)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청년 활동가들이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 청년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
- 높은 '예' 응답 비율은 센터의 청년 대상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유망하다는 것을 시사, 센터는 청년들의 참여 의향을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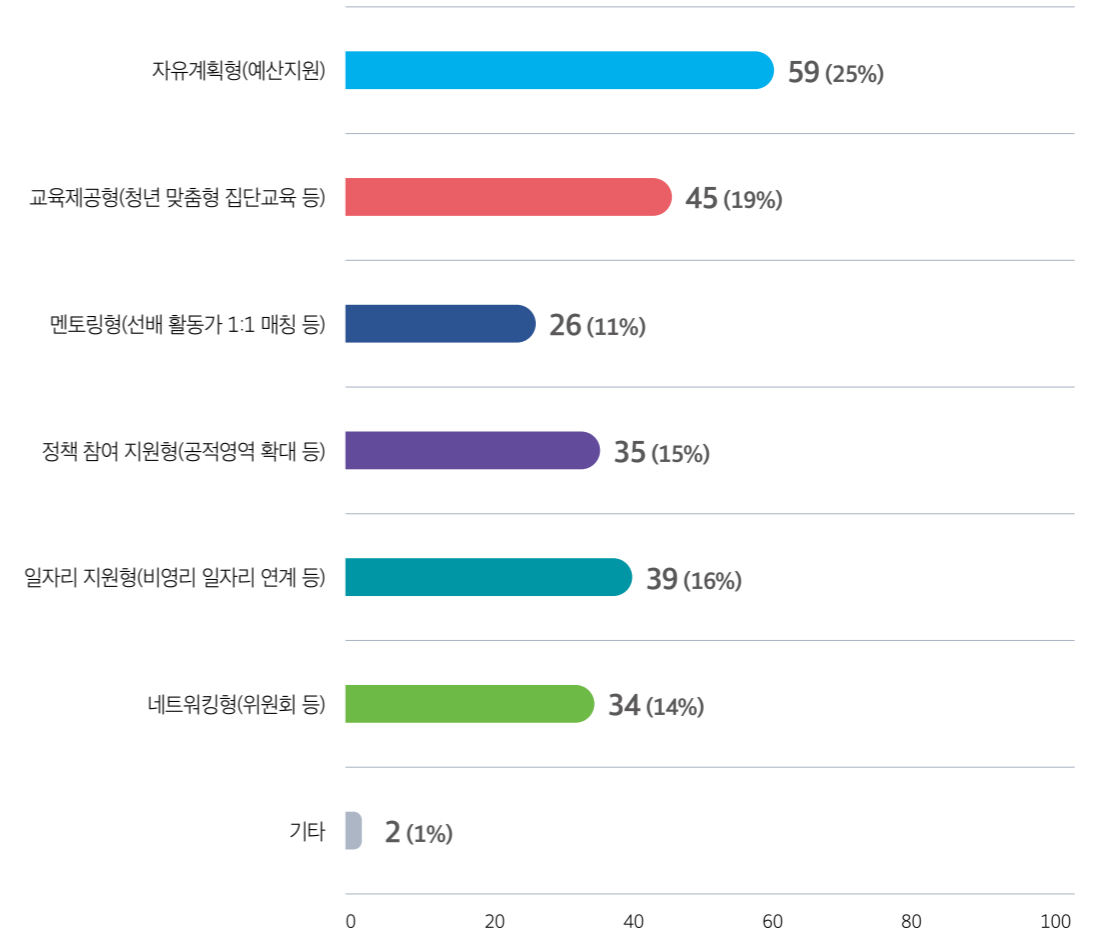
9 프로그램 참여 시,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청년 대상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적절한 프로그램 방식

- [다양한 지원 방식의 선호]** 응답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지원 방식은 청년 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반영, 예를 들어, 자유계획형(59명)과 교육제공형(45명) 방식은 청년들이 자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원하고, 맞춤형 교육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 이는 지원 프로그램이 청년 활동가들의 요구에 맞춰 조정되어야 함을 의미
-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일자리 지원형(39명) 항목에 대한 응답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지원과 안정성을 원하고 있음을 도출, 이는 청년들이 비영리 분야에서의 일자리 기회와 경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
- [정책 참여 지원에 대한 관심]** 정책 참여 지원형(35명)의 응답은 청년들이 공적 영역에서 더 큰 참여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 이는 청년들이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의미
- [네트워킹의 가치]** 네트워킹형(34명) 응답은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 이는 청년 활동가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보와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멘토링의 필요성]** 멘토링형(26명) 응답은 청년 활동가들이 경험 많은 선배로부터의 지원과 조언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 이는 청년 활동가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시사
- [기타]** 기타 응답에서 나타난 여러 방식을 혼합하자는 의견은, 청년 활동가들이 다면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 신규사업 기획 시 유연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
- [총평]** 청년 활동가들이 다양한 지원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센터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신규사업을 설계할 필요 강조, 각각의 지원 방식이 청년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단위 : 명)



※ 기타 답변 내역 2

- 적절하게 여러가지가 방식을 섞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서 그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식이라던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참여를 지원하거나 등 / 거주지 지원

10 위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대상과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구분	의견
비영리 스타트업 및 일자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답변 정리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진행 여부와 지속성에 대한 궁금증 /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공익활동 일자리 연계 및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연계 / 비영리 일자리 연계 /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 비영리 스타트업과 일자리 연계 사업 지원 / 인턴 지원사업 관련 실무 경험 미흡 문제 해결 제안 / 공익활동가 일자리의 안정성 및 채용된 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필요 / 비영리 스타트업 관련 교육 및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필요 /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단체 발굴 제안 / 직무별 스타트업 조직 매칭 프로젝트 제안 / 공익활동과 디자인, 예술활동을 연결하는 일자리 프로젝트 제안
청년 맞춤형 교육 및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답변 정리 : 청년활동가와 선배활동가 네트워킹 및 멘토링 / 청년활동가 프로그램 (1인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 / 청년 활동가 대상 네트워킹 테이블 운영 / 청년들의 취향공동체와 같은 네트워크 지원 제안 / 공익활동 청년 네트워크 및 그룹 형성 제안 (기후, 인권, 이주 등) / 청년 네트워크 및 파일럿 프로젝트 지원 / 청소년, 청년, 전문가 매칭 스타트업 지원사업 / 청년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 사업 /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 청년 활동가와 노인 세대 간 세대 교류 사업 / 청년활동가 워크숍,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 청년 맞춤형 집단교육 제공(연령별 진로 컨설팅, 구직 지원, 재테크 등) / 청년활동가 모임 및 워크숍 기획 /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 제안 (경험 많은 활동가와 청년 연결) / IT 교육 지원 사업
정책 참여 및 재충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답변 정리 : 청년 활동가를 위한 재충전 지원 사업 / 공익활동 청년활동가를 위한 지원사업 접근성 개선 /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 참여 사업 지원 / 정책 참여 및 네트워킹, 교육 제공형 사업 / 청년 공론장 및 사회 이슈 관련 공익활동 리더십 워크숍 / 경기도 탄소중립 프로젝트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청년 제안 활동 / 정책 참여, 네트워킹, 교육 제공형 프로그램 제안 / 정책을 알리고 청년들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제안 /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 활동가 발굴 및 지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인턴 활동 제안
미래 공익활동가 발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답변 정리 : 청년 활동가 발굴 및 멘토링 지원 / 미래의 공익활동가를 찾는 프로그램 (학교 방문 비영리 활동)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GO, NPO 교육 및 센터 연계 프로그램 / 로컬 크리에이터 기회 확대 및 마을 기업 지원 / 미혼모 청년 활동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이주 배경 청년 사회진출 프로그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답변 정리 : 봉사활동, 소모임 등 청년 취향 중심 네트워크 지원 / 영리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논의 프로그램 / 기업과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공익활동 연계

비영리 스타트업 및 일자리 연계

-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들이 비영리 스타트업을 통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
- **[일자리 연계]** 비영리 일자리로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프로젝트 기반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 제안
- **[지속 가능한 일자리]** 단발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청년 맞춤형 교육 및 네트워킹

- **[청년 맞춤형 교육]** 청년들이 공익활동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챗피티 활용법, 보도자료 작성법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
- **[청년 네트워킹]** 지역간, 세대간 교류를 통한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더불어, 선배 활동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 또한 청년 활동가들이 자주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 마련 필요

정책 참여 및 재충전 지원

- **[정책화 사업]**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중요하며, 위원회 형식이 아닌 취향 공동체 중심의 그룹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 예를 들어 기후, 인권, 이주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그룹을 만들어 그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 **[재충전 지원사업]**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지치지않고 지속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와 정신적, 신체적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도출

미래 공익활동가 발굴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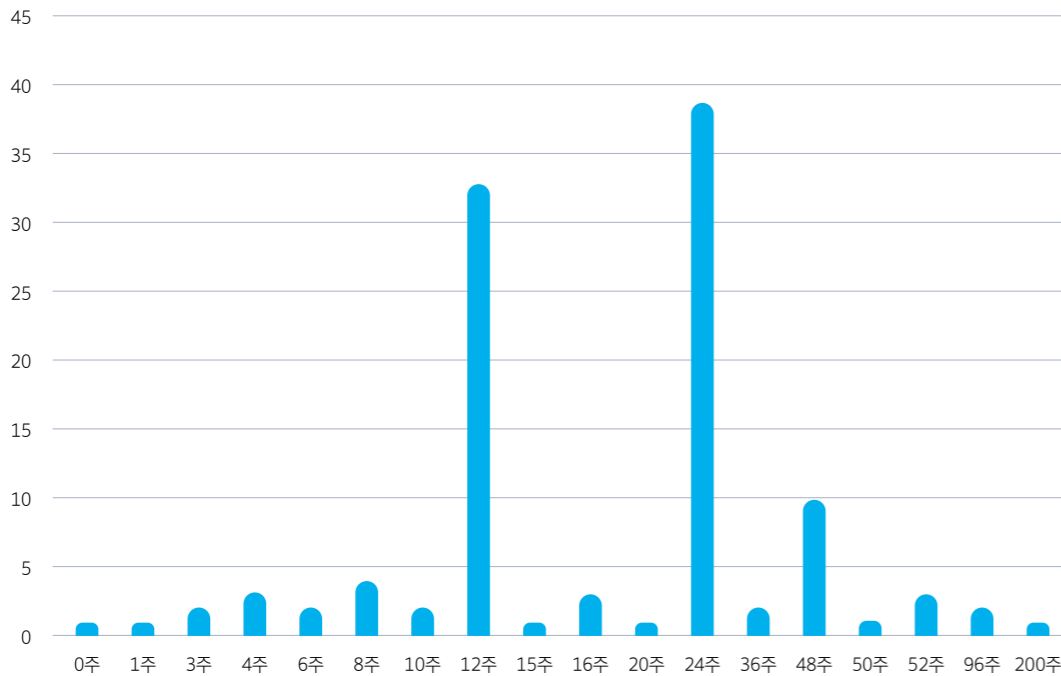
- **[미래 공익활동가 발굴]** 청소년-청년-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청년활동가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 중인 학생들이 공익활동을 접하고, 이를 통해 미래 공익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청년 활동의 지속 가능성]**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자신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을 해결하는 멘토링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

11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단위 : 00주)

예) 12주(3개월), 24주(6개월)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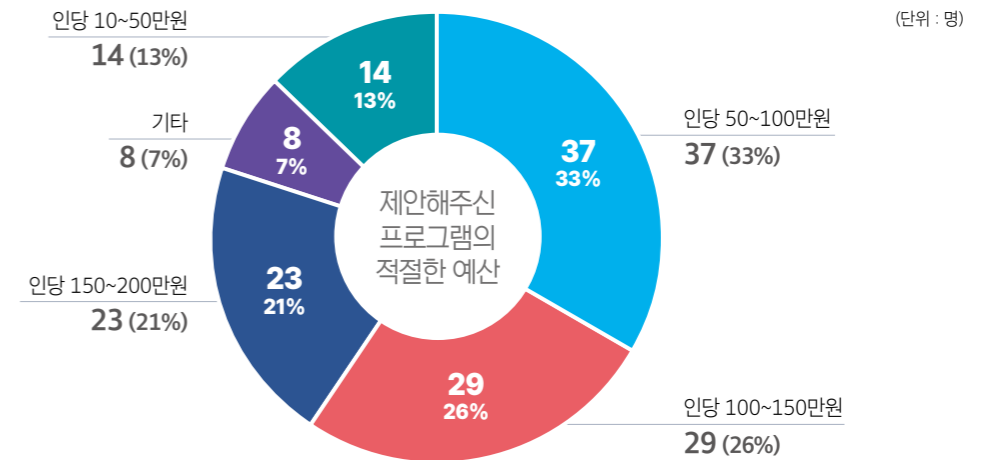
- [장기 지원 선호]** 24주(6개월)의 지원 기간을 선호한 응답자가 39명으로 가장 다수, 이는 청년 활동가들이 중장기적인 지원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시사,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최소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도출
-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중장기적인 지원을 이상적인 기간으로 여기며, 이는 활동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6개월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더 짧거나 더 긴 기간의 선택지도 제공해 개인별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



12 제안해주신 프로그램의 적절한 예산은 어느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제안해주신 프로그램의 적절한 예산

- [50~150만 원 선호]** 응답자 중 50~100만 원을 적절한 예산으로 생각한 비율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100~150만 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29명으로 도출, 이를 통해 청년 활동가들이 50~150만 원 사이의 예산을 현실적인 지원 금액으로 인식, 이 금액은 활동가들이 기본적인 프로젝트 실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판단
-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익활동가들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기타 답변 내역 8

- 팀당 1000만원, 비영리 스타트업의 경우 지금 지원금도 넉넉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만났을 때 커피라도 마실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인건비 축정이 되도록 설계, 프로그램에 따라 200만원이 적은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모름, 현금성 지원보다도... 제대로 운영하고 본질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중요합니다, 센터와 비영리 단체 자원 매칭사업 (예: 300만원 = 250만원 센터 + 50만원 비영리단체 자부담 등), 250만원 이상

1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자의 센터 사업 참여 여부

-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 전체 응답자 중 44명(약 39.6%)이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은 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 활동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시사, 이는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서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그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 및 홍보방안 고려 필요
- 이 데이터는 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자 층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시사,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어떻게 참여로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단위 : 명)



14 참여하셨던 센터 사업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센터 사업 참여 유경험자 대상

1 피드백 및 만족도 섹션

[1-1. 네트워크 사업 관련 : 참여 기회와 프로그램 만족도]

청플이라는 이름이 인상적이고,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었다.

조직관리 역량강화 강의가 매우 유익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

청년 활동가 워크숍이 매우 재미있었다.

[1-2. 홍보이벤트 및 뉴스레터 관련 : 효과적인 정보 제공]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서 좋았다.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공익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1-3. 아카이브 사업 관련 : 직무 역량 및 공익활동 경험 제공]

워킹진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

에디터 활동으로 직무 능력과 공익활동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

[1-4. 센터 사업 및 시스템 관련 : 지원의 실효성과 안내 만족도]

다양한 공익활동 정보 제공과 꼼꼼한 안내가 좋았다.

누구나 공익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다.

② 개선점 및 아쉬운 부분 색션

• [2-1. 지원사업 관련 : 예산 및 네트워킹 한계]

예산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개인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참여자들 간 네트워킹이 부족했다.

센터 예산이 부족해 다양한 지원이 어려웠다.

서류가 복잡하고, 요식 행위가 많았다.

• [2-2. 아카이브 사업 관련 : 교육 및 제작물 개선 필요]

불필요한 제작물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청년 단체 취재 의뢰가 부족해 아쉬웠다.

• [2-3. 홍보이벤트 및 뉴스레터 관련 : 홍보 부족 지적]

"홍보가 저조하여 참여율이 낮았다."

• [2-4. 센터 사업 및 시스템 관련]

'새로운' 그리고 '공익스러운' 신규 사업이 필요합니다.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의 규모나 방식이 매년 바뀌어 아쉬웠습니다. 범위와 내용 축소가 아쉽습니다.

센터가 예산이 불충분해서 힘겨워합니다. 예산 확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5 기타 자유롭게 작성하고 싶은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자유로운 의견에 대한 정리

[총평] 본 설문 결과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청년들에게 신뢰받고 있으며, 다양한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러나 홍보와 정보 전달의 부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 행정적인 절차의 개선 등은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및 사업 운영이 더욱 중요

긍정적 지원과 센터에 대한 신뢰

많은 응답자들이 센터에 대한 지원을 보내고, 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들이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특히, 센터의 친절한 소통과 프로그램 운영이 동기부여에 기여하며, '공익활동'이라는 다소 어려운 개념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는 피드백이 인상적, 이러한 메시지들은 센터가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꾸준히 지원해주길 바라는 기대감과 신뢰를 반영

사업 운영 및 홍보에 대한 개선 요청

응답자들은 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홍보 활동이 충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좀 더 많은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반복적으로 도출, 특히 공익활동의 지속성, 예산 지원, 계획서 작성의 어려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청들도 나오며,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센터의 운영 방식이 청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성을 시사

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참여 기회 제공 필요성

응답자들은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 이주배경 청년과 선주민 청년 간의 교류,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단체지원사업 등의 요청은 청년들의 다양한 배경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또한, 참여 조건을 완화하거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주요결과 및 총평

- 총 111명의 청년활동가가 응답, 응답자의 57%는 1990년대에 출생한 청년
- 거주 및 활동지역에서는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응답, 수원 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41%)을 차지
- 응답자의 42%가 공익활동에 1년 이상 참여한 것으로 도출
- 66%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며, 60%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표명
- 신규사업의 적절한 지원 방식으로는 '자유계획형'과 '교육제공형'을 가장 선호
- 센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1%로, 뉴스레터와 아카이브 에디터 사업이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도출, 그러나 참여자 중 39%는 정보 전달의 부족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제안
- 청년들이 공익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센터의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수요조사 주요결과

총 참여자
111명

총 참여인원

경기도를 거주·활동 지역으로 하는 청년
* 목표인원(100명) 대비 111% 초과달성

참여의향
86%

프로그램 참여의향

'긍정응답 95명'
센터의 청년 대상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유망하다는 것을 시사

24주
(6개월)

지원 기간

대다수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중장기적인 지원을 이상적인 기간으로 여기며, 충분한 시간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

자유계획형
교육제공형

적절한 프로그램 방식

자유계획형(59명)과 교육제공형(45명) 방식 선호
청년 활동가들이 다양한 지원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센터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신규사업을 설계할 필요성 도출

50~100만원

프로그램의 적절한 예산

대체로 50~1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이상적인 지원 예산으로 보고 있으며, 일상적인 공익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충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필요도
94%

청년 지원사업 필요도

4.68 / 5, 높은 필요성 인식은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시사

2025년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수요조사에 대한 의견

청년 활동가 구지혜

들어가며

항상 내 곁의 누군가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왔다. 그러다 보니 곁의 누군가가 즐거우려면 그의 곁의 누군가도 즐거워야 하고, 그의 곁의 누군가가 즐거우려면 그의 곁의 누군가의 누군가도 즐거워야 한다는 가설(?)에 따라 복지와 공익활동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었다. 공익활동 경험이 축적될수록 내 '곁'과 '누군가'의 경계가 확장되고, 어떤 이의 삶에 존재하는 고통에 함께하려면 끊임없이 나를 부수고 깨어가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회 내 불안정성이 심화될수록 모두가 정해진 경로로 달리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일이 전 생애의 유일한 과업처럼 여겨진다. 내 삶의 경계를 굳게 걸어 잠그고, 사회에 다양한 삶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지워진다. 그렇게 스스로가 가진 고정관념이 나와 연결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그 결과가 반드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간명한 사실은 보이지 않게 된다. 이에 더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각자도생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는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한 질문과 호기심을 향한 에너지를 평가절하하거나, 심지어 비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한다.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모두의 삶을 파괴적으로 밀어붙이는 사회 셋팅값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려는 의지를 내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현재 내 삶의 아픔도,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도, 지구인의 고통도, 그 어느 하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발생하는 사건들로 선명히 인지한다면 말이다.

공익활동 현장은 이러한 연결감을 일상적으로 감각 할 수 있게 한다. 한 사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사회와의, 사회구성원들과의 연결감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내 삶에 여러 가지 변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와 마주치는 모두에게 배우면서, 이전의 행동·사고 습관을 버리고, 존재를 더 크게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을 키우게 하는 질문과 성찰을 새롭게 갱신해나갈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띄었든, 변수를 도무지 허용하지 않는 현 사회의 중력을 거스르는 경험은 더 짙은 깊이로 삶을 체험하고 관계를 아끼는 마음의 힘을 키워주었다.

그러나 공익활동의 가치와 의미가 원활하게 환류되지 않는 사회에서, 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바라기에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활동의 의미를 인식하고 경험을 쌓아도, 현장 바깥으로 나오면 그간 쌓아온 역량은 어떤 증명 자격도, 경력도, 이름도 없는 무가치한 무언가로 여겨진다. 활동의 내용에 따라 때로 낙인과 편견 어린 시선까지 받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현장에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기에 저임금과 과잉노동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야 하는 점은 덤이다. 그렇게 **공익활동을 지속 할 경우 그려질 삶의 전망이 생계 보장 차원을 넘어 극단적인 불안정성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의 연속이라면, 어느 누가 공익활동 전반의 지속 가능성, 풍요로운 사회의 재생산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질문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5년 '청년 공익활동' 신규사업 수요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정리했다. 여러 공익활동 영역에 걸쳐있는 청년 활동가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열망과 다양한 사회 이슈를 향한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수요조사에 참여한 많은 청년 활동가들이 부디 오랫동안 공익활동 현장에 남아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고민을 나눠가는 동료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조건을 고민·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협력이 이끌어 낼 시너지에 기대를 보낸다.

1 지자체의 청년 공익활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자원 투여 의의

수요조사에 참여한 청년 활동가들의 거주 및 활동 지역은 매우 폭넓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워낙 여러 지역 간 경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겠다. 이를 고려해 볼 때 경기도는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사회 이슈가 섞이고 흐를 수 있는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실험해 볼 만한 공익활동의 스펙트럼과 자원 가용의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광역 단위에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통계 분석 시사점에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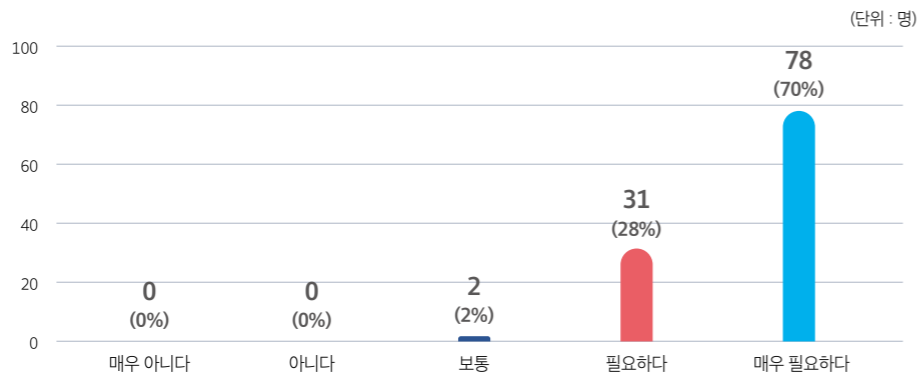
이러한 경기도의 특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우려 지점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자원 불균등이다. 지역 간 참여 비율 폭이 크므로 소규모 지역이 활동 현장 간 교류와 자원 환류의 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 테이블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이 가진 공익활동의 잠재력을 활용해 낼 창구의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정보 제공과 네트워킹의 거점으로서 센터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게 다가온다.

거주 및 활동 지역이 다양한 만큼, 응답자들은 다양한 배경과 조직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자의 배경에 따라 공익활동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 실천의 효과도 다층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다층성을 서로의 배경과 조직 경계에만 고립시키지 않고, 모아내어 확산한다면 각자가 지닌 고유한 아이디어나 전략을 더욱 입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류를 통해 각 경험에서의 한계를 발견하고 아이디어의 고유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장의 기획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가진 이들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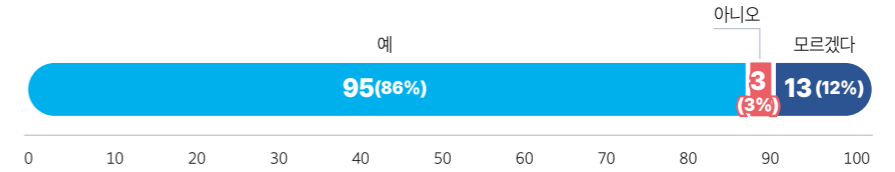
다만 다양한 참여 기간에 따른 청년 활동가들의 교류가 이뤄질 때, 각자의 경험과 배경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소통 장치의 마련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입장 및 경험의 차이가 '틀린 것'으로 공격받거나, 연차 등의 이유로 과소 혹은 과대평가된다면 참신한 의견의 생산이나 자유로운 교류가 이뤄질 수 없다. 서로-배움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통 장치의 마련은 공익활동 참여 세대 간의 연속성과도 연결된다. 앞으로 만나게 될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 공익활동이라는 키워드는 공통적이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문화 속에 자라왔으며, 현장에 진입한 계기도 모두 다를 것이다. 이러한 차이들이 **소통의 걸림돌이자 차별의 요소가 아닌, 독창적인 가치들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천천히 축적된다면, 새로운 세대의 유입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특정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전부터 통용되어 온 해당 세대의 상과 과업에 이들의 상황을 끼워맞추기보다, 변화하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상황이 고려될 때 실효성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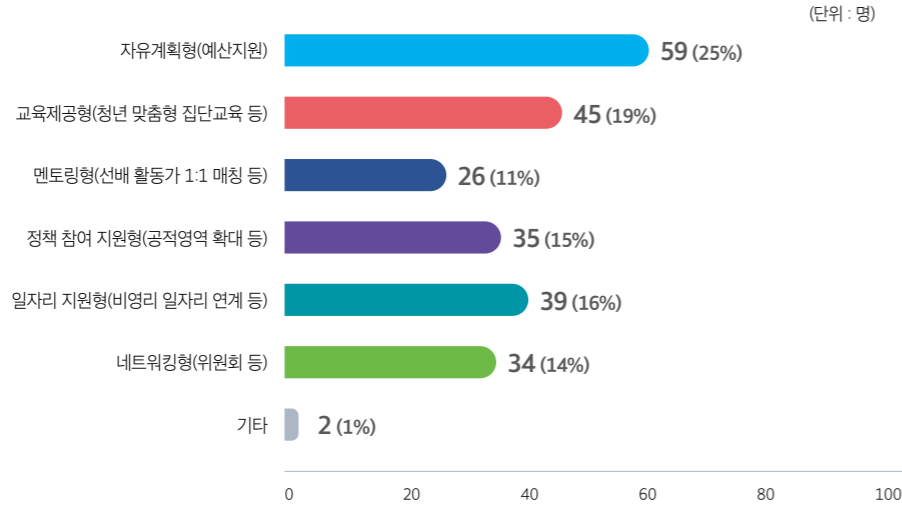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필요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를 78명(73.1%), '필요하다'를 31명(29.8%)이 선택했다. 현재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자원과 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번 수요조사에서도 일면 이뤄졌지만,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필요도를 느끼게 된 배경, 청년 활동가들이 그간 가지고 있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해소해 나갈 프로그램이 기획된다면, **참여 의향에 대한 통계(95명, 89.6%)**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청년 활동가들이 센터의 사업을 통해 공익활동을 계속해 나갈 동력을 찾고, 나아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자원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 공익활동 자원 지원의 방향성 : 프로그램 내용

공익활동 영역이 필연적으로 염두 해야 할 점은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른 공익활동의 요구와 의제가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점이다. 변수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과 위치에서 도출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실험/실행해 볼 수 있는 장이 거대한 진입 장벽 없이 일상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질 때 공익활동의 '재미'와 '의미'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 역시 일상화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시,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 기타 답변 내역 2

- 적절하게 여러가지가 방식을 섞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서 그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식이라던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참여를 지원하거나 등 / 거주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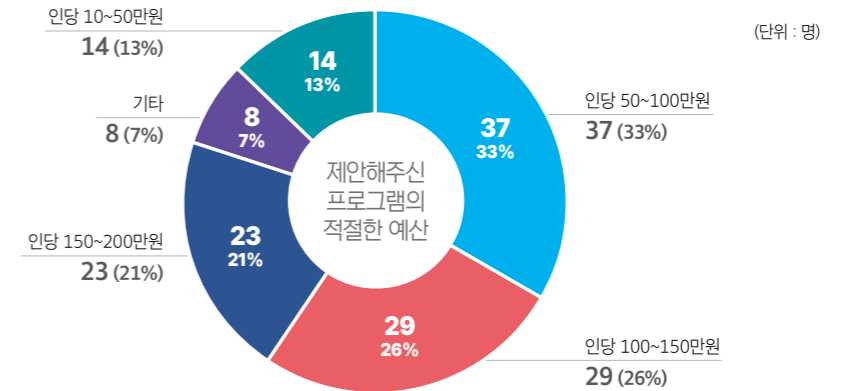
이를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청년 공익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 방식에 '자유계획형'과 '교육제공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 결과가 반갑다. 해당 통계에서는 자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와 함께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교육 및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진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다채로운 사회 이슈들의 발굴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통로 역시 확장 시켜 가는 과정이 된다.

프로그램 제안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응답을 살펴보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을 바라는 청년들이 다수다. 공익활동 영역의 지속가능성은 청년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며 겪는 불안정적인 현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읽어내고, 이를 해소할 공식적인 창구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와도 연결된다. 특히 새로운 사회 이슈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가고 싶은 청년들은 더욱 큰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미래 공익활동가' 발굴을 해도 자원 공백으로 인한 과정적인 어려움과 불안정성이 반복된다면, 그만큼 공익활동 영역을 빠져나가는 청년 활동가들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청년 활동가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프로그램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청년 공익활동 자원 지원의 방향성 :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지원 기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도 청년 활동가들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욕구가 파악된다. **최소 24주(6개월)의 지원 기간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다수였고, 12주(3개월)의 지원 기간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그 뒤를 따른다.** 현실적으로 단기적 지원은 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 수준을 가능해보는 경험을 축적하기 어렵고, 관심 있는 사회 이슈를 활동으로 풀어낼 이행 계획을 세워 보는 데 한계가 있다.

제안해주신 프로그램의 적절한 예산은 어느정도라 생각하십니까?



※ 기타 답변 내역 8

- 팀당 1000만원, 비영리 스타트업의 경우 지금 지원금도 넉넉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만났을 때 커피라도 마실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인건비 축정이 되도록 설계, 프로그램에 따라 200만원이 적은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모름, 현금성 지원보다도... 제대로 운영하고 본질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중요합니다, 센터와 비영리 단체 자원 매칭사업 (예: 300만원 = 250만원 센터 + 50만원 비영리단체 자부담 등), 250만원 이상

청년 활동가들의 이러한 현실 인식은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예산 책정 문항에서도 찾을 수 있다. **37명의 응답자가 50-100만원을 적절한 예산으로 꼽았으나** 그 이상의 액수들과의 응답폭이 크지 않고, 무엇보다 프로그램 성격과 목표에 따라 넉넉한 지원과,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지원(교육 프로그램,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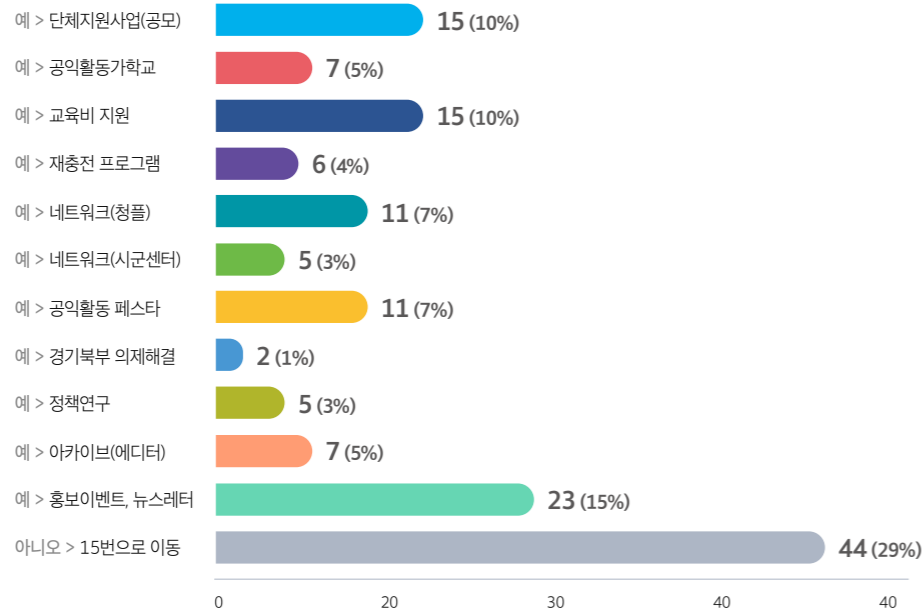
귀하의 근무형태는 무엇입니까? (선택)



이와 관련하여 수요조사에 참여한 청년 활동가들의 현재 근무 형태 통계에도 주목했다. **정규직 비율이 58.3%에 달하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41.7%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계약기간이 있는 고용 형태에 종사할 경우, 고용에서의 불안정성을 경험할 뿐 아니라, 활동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할 아이디어의 장기적 수립-이행을 상상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이 갖는 실무 경험에 있어서 격차가 생길 테고,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질수록 다양하고 개성 있는 의견이 순환되어야 할 공익활동 영역에 경직된 경계가 생길 위험성이 커진다. 이러한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근무 형태에 있어 안정성을 도모하는 정책과 더불어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 전반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불안정성과 막막함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섬세한 질문 탐색과 의견 모색 과정이 필요하다.

4 센터 사업 참여 독려에 관한 제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수요조사에서 파악된 **'센터 사업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 활동가들의 비율은 61%다. 낮지 않은 비율이지만, 더 많은 청년 활동가들이 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센터에서 제공되는 자원을 상황과 시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단체지원사업(공모)과 교육비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의 수가 많은데, 두 사업을 큰 줄기로 하여 네트워크와 센터 사업 기획 과정에 참여하여 권한감을 강화할 수 있는 부수 프로그램의 배치를 제안한다.

예컨대 본 수요조사를 진행한 청년네트워크 '청풍'의 활동 역시 그 시도의 일환이겠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단체지원사업(공모)과 교육비 지원사업, 재충전 프로그램 등 센터의 다른 사업에도 녹아들어 청년 활동가들의 참여와 역량강화, 기여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올해 진행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관련 연구나 조사 사업을 청년 단위와 협력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이다.

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자유 의견 응답을 참고해 보았을 때, 지원사업(예산) 규모나 방식의 안정성-지속성, 정보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킹의 자리,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성취감 고취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의견이 주를 이룬다. 단기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공동의 고민이나 질문(사업계획서 작성과 같은 실무 관련된 실용적인 고민에서부터 공익활동 영역의 지속가능성 논의와 관련된 거시적인 고민까지 등)을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동료 청년 활동가들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상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장기적인 사업 기획(단체지원사업 혹은 교육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목소리를 모으는 기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활동가들 간 네트워킹의 기회로도 이어진다.

센터의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크지 않다는 감각을 한 번 느낀다면, 꼭 센터 주도의 홍보가 아닐지라도 교류의 욕구를 가진 청년 활동가들이 스스로 소문을 내고 다른 활동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센터에 대한 긍정적 응원과 신뢰를 보낸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구조 외에도 긍정적인 감각을 자주 쌓아가면서 청년 활동가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벼운' 자리가 다수 필요하다.**

청년 활동가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이 담긴 답변을 보며 많은 힘을 받았다. 오랫동안 해온 고민들이 겹쳐 떠오르기도 하고, 의견을 남긴 활동가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 싶기도 했다. 청년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기 쉽기도 한데, 그만큼 공익활동에 참여 중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다양한 형태의 부정의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체감될 만큼의 사회적 지원이 가닿고, 이들의 이어지는 삶 동안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그 순환의 효과는 더 나은 사회를 성큼 앞당기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활동을 이어오며 쌓여온 복잡한 맥락의 수습, 수백 가지 고민들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면, 시간이 흐른 후 공익활동에 합류할 이들도 반복적으로 겪게 될 고민이라는 의미일 텐데, 이 고민 실타래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부터 들기도 했다. 공익활동 현장에 함께 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만큼, 참여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안정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힘과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관계와 공간이 사회 내에 훨씬 더 많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센터가 진행하게 될 신규 사업들이 청년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잇고, 엮어낼 통로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들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과의 교류와 협력 시도를 통해서, 지역 경계를 넘어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보다 널리 확장되고 연결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구지혜

-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 활동 준비 단계
 - * 성매매를 둘러싼 현실과 성산업 경계를 넘나드는 청소년들의 권리 박탈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기획해가고 있음. 기독교 내 성소수자 운동, 청소년 주거권 운동 현장에 속해 느슨하게 활동에 참여 중
- 한국교회를 향한 귀여한 질문 큐앤에이 운영위원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개인 참여 활동가
-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2 반짝반짝 논문공모전》 수상 : 『탈장소』 경험을 통해 본 십대 여성 주체에 관한 연구 : 성매매를 경험한 십대 여성을 중심으로』
- 2021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우수논문상 수상 : 『탈장소』 경험을 통해 본 십대 여성 주체에 관한 연구 : 성매매를 경험한 십대 여성을 중심으로』

청년 활동가들을 위한 제언

김유리 사)시민 사무처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청플' 출범 소식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청플 주관으로 청년공익활동 신규사업 수요조사를 조사하여 경기도 내 청년 활동가를 위한 지원의 새로운 전환 방향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청플이 청플했다!'라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요조사 응답결과의 경향성을 보면 시민사회 지원조직인 센터에게 바라는 점과 우리 사회에 던지는 목소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고 느껴 집니다.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에 반해 공익활동을 둘러싼 지금의 환경은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환경 기반과 자원 기반이 오히려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청년 활동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공익활동 생태계 전반에 위협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익활동 생태계가 마냥 우울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고, 청플과 같은 네트워크의 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수요조사 가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결과를 보고 느꼈던 개인적 단상을 몇 가지 전합니다.

첫째, 청년 활동가라고 통칭하여 호명하고 있지만 청년 활동가 욕구에 기반한 지원사업 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청년 활동가 유형을 세분화하여 일종의 '페르소나 유형화'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대의 범주가 넓다 보니 2000년대 생의 청년 활동가와 1980년대 생의 청년 활동가의 고민의 방향과 내용의 결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중대규모 도시 권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와 소규모 군단위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전업으로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와 사이드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N잡러로서의 청년 활동가 간의 욕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차분석을 통하여 조사결과에 드러나지 않은 함의와 구체적인 목소리를 확인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청년 활동가의 네트워크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점 단위의 만남이 선이 되고, 다시 면

으로 연결되어 경기 권역 전체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의 장이 필요합니다. 수요조사결과를 보면 공익활동의 필요성과 참여욕구가 모두 높게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청년 활동가들의 참여동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욕구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참여로 연결 짓기 위한 '부스터'가 필요한데, 이 부스터 역할이 센터에게 기대하는 지원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자유계획형 사업지원과 교육제공형을 선호하였으나 멘토링형, 정책참여지원형, 네트워킹형을 통합하면 결국 '네트워킹의 필요'로 압혀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이 '고립되지 않고, 고리로 연결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여러 형태로 열거된 선호형태에 대한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네트워킹을 운영할 때, 주제와 목표를 작게라도 정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네트워크들이 느슨한 네트워크를 표방한다는 이유로 네트워크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회적이고 휘발적인 네트워크로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점 단위의 작은 네트워크가 오밀조밀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 활동가의 네트워크가 다양한 주제,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말을 거는 행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목소리보다 텍스트에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함께 모이기 보다는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한 경향성을 뚫고 청년 활동가들이 서로 오롯이 함께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는 계기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7월 처음으로 진행한 '공익활동가 주간' 기간에 활동가 인터뷰를 하여 아카이빙한 것처럼 **경기권역 청년 활동가들을 서로 인터뷰하여 콘텐츠를 쌓고, 사람을 쌓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그 사람의 생각을 쌓는 활동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 큰 틀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판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식시키고, 드러내는 연결 고리가 필요합니다.

선호하는 지원내용에 대한 의견 중 자유주제형이 많았는데, 주제는 자유롭게 하되 운영의 형태와 목표는 청년 활동가의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실험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후 각 네트워크 모임 전체가 모이는 일종의 부트캠프 방식으로 연결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임팩트 커리어 교육의 효과도 겸해서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제도에 대한 요구도 높았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지역적 편차는 있겠지만 공익활동에 필요한 교육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조직들이 정보플랫폼 역할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가 직접 청년 활동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그에 맞는 교육정보를 연결 짓고, 알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요즘의 청년 활동가들은 활동 동기의 촉발 지점이 모두 분명해 보입니다.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진입하기 이전까지의 생애 주기에서의 주요한 사건이나 변곡점, 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발생한 사회적 참사나 이슈들이 기폭제가 되어 활동의 동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동기가 명확한 것 만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활동을 하다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소진 현상도 빨리 오기도 합니다. 개인적 경험상 그럴 때 활동의 동기와 이유를 다시 되짚어보고,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의 상태를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육과 활동의 근육이 서로 연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칠 때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보다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답을 얻지 못 하더라도 내 고민을 드러내는 것 만으로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김유리

- (현)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운영위원)
- (전)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
- (전) 사단법인 생명익숲 부장

주제별 네트워크

청춘 - 서핑 Surfing

2024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



Part 4 파도위키

파도 위의 나침반
서핑의 흔적

파도 위의 나침반

청년
활동가를
위한 제언

정선미
운영총괄
실장

나는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전히 진행형인 인생의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 글을 씁니다.

신대륙을 탐험하려던 탐험가들처럼,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2024 청년플로우를 시작한 지 벌써 7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 할 때는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원대한 포부로 출발했지만,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정이 시작되자 함께하는 활동가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모여 즐거운 모험이 되었고, 함께 흘러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자는 마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를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무사히 첫 기착점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이정표는 어디인가요?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공익활동가의 길을 택한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려는,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안전과 인권 문제, 기후 위기, 평화 등 당면한 사회적 과제와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역동적인 사회·정치적 환경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청년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도전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청년플로우와 비슷한 청년 시기에 시민단체에서 첫 발을 내디디며 활동가가 되어갔던 저에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모든 후배는 언제나 선배보다 훌륭하다!" 어떤 의도와 의미였는지 선명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리 대단한 질문도 아니었는데 돌아온 답변이 이 문장이라 좀 의아했던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격려였을지도 모

르겠습니다만 저에게 그 말은 씨앗으로 뿌려져 지금까지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으로, 때로는 자신에 대한 신뢰로, 때로는 함께 만들어갈 세상에 대한 설렘과 공감대로 말이죠. 마치 이어달리기의 바통처럼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선배보다 훌륭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하는 이 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흘러 물줄기를 바꾸려는 공익활동이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기회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시민의 존재는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참여와 사회 운동이 집합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구성되는 원리이자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다만 사회적 변화가 결과가 되기까지는 길고 힘든 과정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작은 성과와 과정을 차근차근 쌓아가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에 헌신해온 서로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변화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시민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아닐까요?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숲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사회의 불평등이나 문제를 직면하면서 감정적 소진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여 지치기도 합니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 만큼 그 과정에서 더 비판적이거나 절망적인 태도가 되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과 사회가 어떤 것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일 것입니다. 더딘 변화가 나의 노력을 무용하거나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태풍의 눈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공익활동가들이 자신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 혹은 목표를 세상의 변화와 밀도 있게 연결짓기에 겪는 감정적, 정신적 부담은 단순한 격려나 응원으로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또한 쉬운 일은 아니지요. 다만 잔잔해 보이는 강이나 바다도 언제나 물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관계망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활동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사적인 혹은 개인내적 문제만이 아니며, 관계망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즉,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공동체뿐 아

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한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해 회복력과 탄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네트워크를 넘어 수 많은 생명이 깃들어 살고 있는 숲처럼 서로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의 관계망, 삶 생태계를 건강하게 일구어가기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 대중음악가였던 레너드 코헨(Leonard Cohen)의 송가(Anthem)인데요. 이 노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수 많은 활동가들이 '너무나 굳건하여 도무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세상'에 작은 틈을 만들고, 어두움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억압을 자유로, 좌절을 용기로 바꾸어 왔고,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활동가들에게 전합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서로에게 손내밀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이 많아졌습니다.

청년플로잉을 통해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신 청플 위원님들과 청년활동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선미

- (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총괄실장
- (전) 화성시청 사회정책 전문위원
- (전) 성미산학교 교사
- (전)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청년 활동가를 위한 제언

송원찬 소장

로제의아파트를 들으며, 윤수일의아파트를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청년들을 향해 "내 성공의 비결은 노력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노력했고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청년들도 나처럼 노력하고 간절히 원하면 성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언가 불편하고 누군가는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하거나 꿈을 이루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을까요? 남들보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꿈과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해서 반드시 이기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각자도생을 유도합니다. 거기에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청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의 치열한 20-30대 청년 시대는 세상을 열고 싶었고 적어도 내 자식 세대에는 좀 더 나은 사회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정녕 물려주고 싶은 세상이 되었는지 묻는다면 청년의 자식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미안하고 허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삶, 연대하는 우리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어 작은 희망을 봅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뜻을 같이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삶과 실험을 경험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모습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2024년 올 한해 함께한 청플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후속 청플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지금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신나는 로제의 아파트를 들으며 응원가로 유명한 옛날 윤수일의 '아파트'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도 지은 지 30년, 40년 되면 재개발, 재건축하게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로제의 '아파트'처럼 새롭고 신나는 '아파트'를 설계하고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송원찬

- (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공동위원장
- (현)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 (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 (전)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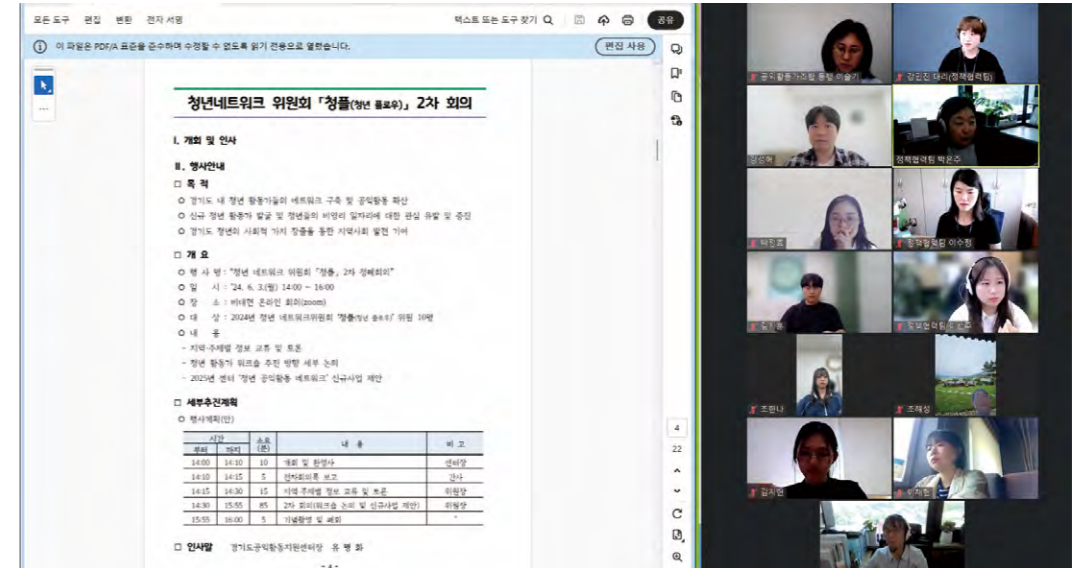
서핑의 흔적

정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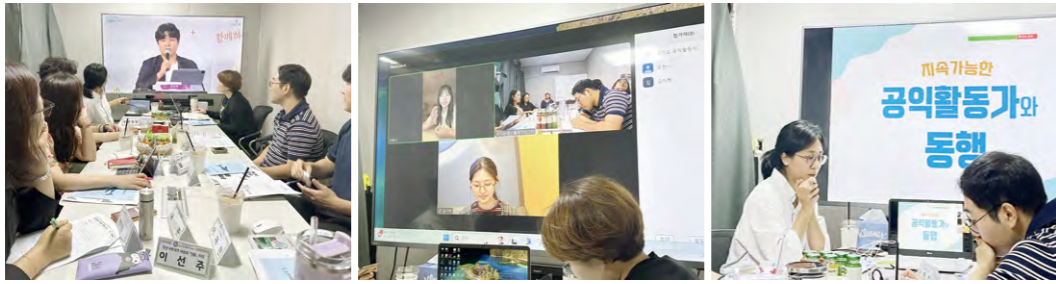
1차 회의, 출범식



2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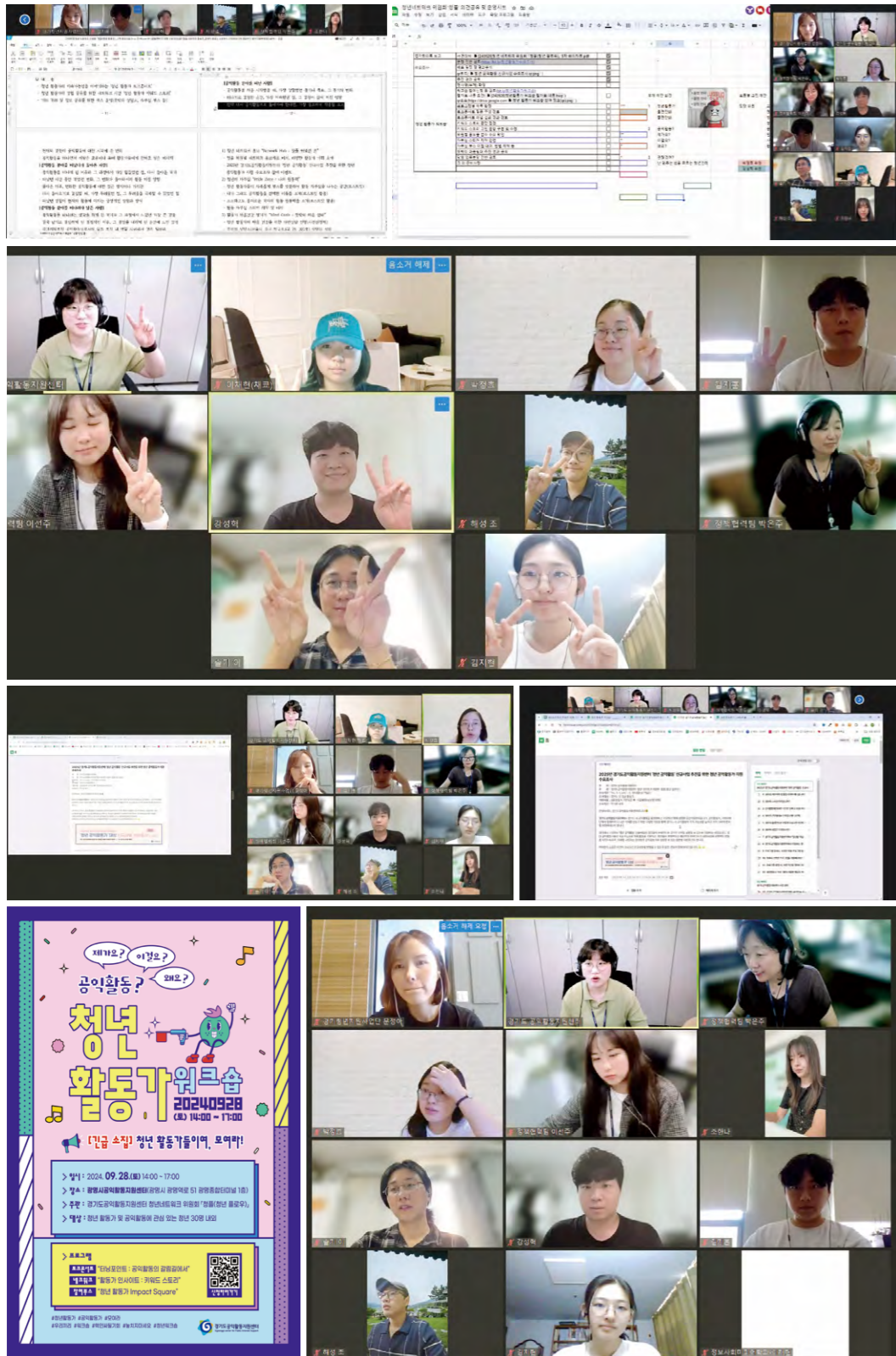
3차 회의



4차 회의



5차 회의



6차 회의





청년활동가 워크숍



주제별 네트워크

청춘 - 서핑 Surfing

2024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

발행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발행일 2024년 12월 27일

디자인 청맥

기획 및 편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협력팀, 청년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주소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구청사 구관 2층

전화 031-267-4340 / 홈페이지 www.gggongik.or.kr

COPYRIGHT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주제별 네트워크

청춘 - 서핑 Surfing

2024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청플(청년 플로우) 성과보고서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